

龍의 주도

수능 국어를 능히 이겨내려면

선택 **16분 컷**을 당연하게!

문학 **26분 컷**을 바탕으로!!

독서 **36분 진검승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독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칙적인 접근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목과 문학에서만큼은 **원칙! 안에서**의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무기들이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교재는

수능 국어 출제 경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수능 국어 공부의 방향성과 전략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QR을 통해 **황용일** 수업 맛보기 및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 등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강좌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들은

출강 학원 또는 010-6291-4340로 문의해 주세요.

2027학년도
Preview

가장 실전적인
사고와 방법을 만나다.



CONTENTS

I	수능 국어는...	8
II	수능 국어 출제 경향 및 학습 전략	12
	2026학년도 수능 국어 출제 경향	12
	2026학년도 영역별 출제 경향 및 학습 전략	16
III	미르원스국어 Review	28
	Review_2026	
IV	미르원스국어	64
	수능 독서	64
	수능 문학	82
V	미르원스국어 Preview	94
	수업 특징 / 학습관리 / 학습교재 / 학습계획	
VI	빠른 정답	97



龍의 주도

I 수능 국어는...

수능 국어는...

난제 1 시간이 부족합니다.

수학

26수능 미적 선택

순위	문항 번호	오답률	배점
1	21	98	4
2	30	97	4
3	22	97	4
4	29	82	4
5	28	72	4

국어

26수능 언매 선택

순위	문항 번호	오답률	배점
1	12	78	3
2	39	73	2
3	6	70	2
4	15	67	2
5	36	66	3

수학은 상위 오답률 문항 번호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틀리는 거지요. 한편 수능 국어에서 **몰라서** 틀릴 확률이 제일 높은 영역은 **‘독서’**입니다.

하지만 독서 오답률, 특히 **후반부(11~17번)** 문항 오답률은 정말 온전히 몰라서였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려운 독서를 마지막에 만집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부족한 거지요. 그리하여 이 문항들의 오답률에는 ‘난도’에 더하여 **‘시간 부족’**이라는 요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해결 1

이겨낼 수 있는 영역에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기고 싶은 영역에서는 누구보다도 여유 있고 정확하게!!

그러려면

선택 16분 컷을 당연하게!

문학 26분 컷을 바탕으로!!

독서 36분 진검승부를 하라!!!

어찌 보면 모두가 알고 있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을 진짜 구현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의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지요.

즉 이 큰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세부 전략의 수립 및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난제 2 불안하다. 점수도 불안정하다.

수학

26수능 미적 선택

순위	문항 번호	오답률	배점
1	21	98	4
2	30	97	4
3	22	97	4
4	29	82	4
5	28	72	4

국어

26수능 언매 선택

순위	문항 번호	오답률	배점
1	12	78	3
2	39	73	2
3	6	70	2
4	15	67	2
5	36	66	3

수능 국어에서 우리는, 출제진이 의도하지 않은 문제에서도 사고의 오류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에서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매 시험마다 오류를 보이는 영역이 달라지기도 하며, 심한 경우 **나만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점수의 등락 폭이 크고, 어디에서 틀릴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을 떨쳐내기가 어렵지요. 이러한 ‘불안감’은 평소 공부에도 영향을 미쳐 국어 공부는 해도해도 끝이 없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해결 2

국어의 본질은 글자를 ‘보는’ 데 있지 않고, 글의 ‘의미’를 살피는 데 있다!

국어의 본질	
글자를 보다	글의 의미를 살피다
정보 A, B가 있다	정보 A, B의 뜻을 이해하다
직관(정보처리속도)	독해력(문해력, 감상력)

예전 국어의 경우 지문이 길었습니다. 독서의 경우 보통 30개 이상의 문장으로 지문을 구성하여 4~5문제, 즉 20~25개의 선지를 만들어 냈지요. 그리하여 사실적 이해, 즉 선지에서 묻는 정보 A, B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정보처리속도(직관 능력)’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국어는 지문이 짧습니다.** 독서의 경우 15~20개

의 문장으로 지문을 구성하여 4~5문제, 즉 20~25개의 선지를 만들지요. 그러다 보니 지문의 문장 그대로를 선지에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문의 ‘문장 A가 내포(함의)하는 바’, 즉 부차적 정보가 선지에 내려앉게 되는 추론적 이해, 즉 정보 A, B의 ‘뜻을 이해’하는 ‘독해력(문해력, 감상력)’의 중요도가 높아졌지요. 우리가 어이없게 틀리는 문제들은 대부분 직관, 즉 시각적 경험에 의존한 판단에 기인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빨리 풀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를 해설을 본 후 다음 지문과 문제로 넘어가는 식의 빨리빨리! 많이많이!! 공부로는 요즘 국어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문제 풀이 후에는 반드시! **지문의 문장과 문단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선지가 묻는 바를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이를 지문과 비교하는 식의 ‘깊이 있는’ 분석 공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독해‘력’, 문해‘력’, 감상‘력’, 문제풀이 능‘력’ 등 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지요.

결론 1 많이 풀다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아닙니다! 수능 출제진이 원하는 것은 대학 수학 능‘력’입니다.

이는 **양적 공부보다는 질적 공부**에 기인하며, 때문에 이에 어울리는 **학습 전략과 방향성 수립**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 2 내신식으로 내용을 떠먹여주는 수업??

아닙니다! ‘이 지문에 담긴 내용은 A란다. 그러니 정답은 B겠지?’ 식의 내용만 알려주는 수업, 내용만 익히는 공부는 시험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내신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수능은 ‘**이 지문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읽어야 해.**’와 같이 지문과 선지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 그러한 사고법을 익히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수업 시 선생님의 사고 과정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담긴 해설(미르원스Voice)을 많이 읽으세요. 콘텐츠 내에서도 쌤의 목소리(미르원스Tip, 학습 목표 등)에 관심을 두세요. 그러면 어느덧 쌤과 함께 싸우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결론 3 수업 및 콘텐츠 활용, 즉 공부의 목적은 항상 다음 세 가지에 있어야 합니다.

첫째, 수능은 쌤과 함께 하는 싸움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사고 방식을 체화해야 한다!**

둘째, 선택의 불안감을 자신감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확실하면서도 다양한 무기(접근법)를 장착해야 한다.**

셋째, 제대로 다 하고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최대한 빠르게! 풀어야 한다. 그리고 여유 있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龍의 주도

Ⅱ 수능 국어 출제 경향 및 학습 전략

2026학년도 수능 국어 출제 경향

2026학년도 영역별 출제 경향 및 학습 전략

최근 4개년 수능 국어 출제 경향

23수능 등급컷

등급	원점수	
	화작	언매
1	93	91
2	86	84
3	77	75
4	67	66
5	54	52

24수능 등급컷

등급	원점수	
	화작	언매
1	87	85
2	79	77
3	71	69
4	61	59
5	51	49

25수능 등급컷

등급	원점수	
	화작	언매
1	95	92
2	88	86
3	79	77
4	69	66
5	58	55

26수능 등급컷

등급	원점수	
	화작	언매
1	89	85
2	82	78
3	74	70
4	63	59
5	50	47

23수능 상위 오답률

화법과 작문

순위	번호	오답률	영역
1	17	85	독서
2	15	70	독서
3	12	64	독서
4	11	61	독서
5	16	60	독서
6	8	56	독서
7	14	42	독서
8	40	41	화작
9	41	38	화작
10	25	32	문학
11	33	30	문학
12	1	29	독서
13	6	28	독서
14	9	26	독서
15	31	25	문학

24수능 상위 오답률

화법과 작문

순위	번호	오답률	영역
1	45	73	화작
2	10	72	독서
3	30	70	문학
4	15	70	독서
5	40	68	화작
6	16	64	독서
7	34	63	문학
8	27	63	문학
9	5	63	독서
10	28	62	문학
11	13	57	독서
12	7	57	독서
13	31	57	문학
14	14	54	독서
15	24	51	문학

25수능 상위 오답률

화법과 작문

순위	번호	오답률	영역
1	8	82	독서
2	7	73	독서
3	16	69	독서
4	13	58	독서
5	18	57	문학
6	20	53	문학
7	21	52	문학
8	34	50	문학
9	11	50	독서
10	45	48	화작
11	5	46	독서
12	27	43	문학
13	12	41	독서
14	32	40	문학
15	3	39	독서

26수능 상위 오답률

화법과 작문

순위	번호	오답률	영역
1	12	76	독서
2	45	70	화작
3	6	70	독서
4	15	68	독서
5	17	64	독서
6	7	61	독서
7	40	58	화작
8	16	58	독서
9	11	55	독서
10	8	52	독서
11	34	51	문학
12	21	50	문학
13	31	48	문학
14	23	48	문학
15	29	47	문학

언어와 매체

순위	번호	오답률	영역
1	17	85	독서
2	35	80	언매
3	39	70	언매
4	15	70	독서
5	12	64	독서
6	11	61	독서
7	16	60	독서
8	8	56	독서
9	14	42	독서
10	37	33	언매
11	25	32	문학
12	33	30	문학
13	1	29	독서
14	38	29	언매
15	6	28	독서

언어와 매체

순위	번호	오답률	영역
1	10	72	독서
2	30	70	문학
3	15	70	독서
4	37	66	언매
5	16	64	독서
6	35	63	언매
7	34	63	문학
8	27	63	문학
9	5	63	독서
10	28	62	문학
11	13	57	독서
12	7	57	독서
13	31	57	문학
14	39	54	언매
15	14	54	독서

언어와 매체

순위	번호	오답률	영역
1	8	82	독서
2	7	73	독서
3	16	69	독서
4	13	58	독서
5	18	57	문학
6	20	53	문학
7	21	52	문학
8	34	50	문학
9	11	50	독서
10	5	46	독서
11	27	43	문학
12	12	41	독서
13	32	40	문학
14	3	39	독서
15	37	38	언매

언어와 매체

순위	번호	오답률	영역
1	12	76	독서
2	39	75	언매
3	6	70	독서
4	15	68	독서
5	17	64	독서
6	35	64	언매
7	36	64	언매
8	7	61	독서
9	16	58	독서
10	11	55	독서
11	8	52	독서
12	34	51	문학
13	21	50	문학
14	31	48	문학
15	23	48	문학

등급 컷 및 오답률에 따른 총평

■ 난도 편차가 큰 시험일수록 쉽고 편합니다.

난도 편차가 크다(85%~32% / 1~10위 / 23수능)는 것은 쉬운 건 엄청 쉽게 느껴지고, 어려운 건 엄청 어렵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판단하기가 쉽지요.**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자'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버렸던 것을 취할 수 있는 시간만 있다면 실력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3학년도 수능은 독서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문항은 EBS만 준비해 가든, 문제 풀이 위주의 공부만 하든, 뭐 어떤 식으로 공부해 가든 변별력이 별로 없었지요. 선택과목 역시 일부 문제(언매 중 문법)만 제외하고는 변별력이 크지 않았기에, 문법 외에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치 않다 여기는 수험생도 많았고, 실제 시험도 그러했습니다. 즉 어려운 건 지나치게 어렵고, 쉬운 건 지나치게 쉬워서 배움의 의미가 퇴색된 시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난도 편차가 작은 시험일수록 어렵고 힘듭니다.

난도 편차가 크지 않은 경우(73%~62% / 1~10위 / 24수능)에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또 이겨야 되는데도 정답이 자꾸 사라져서 괴롭습니다.** 어디에서 어려울지 예상이 되지 않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뛰지 못하고 느릿느릿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봤을 때는 너무 짧은 시간과 함께 너무 많은 지문이 남아 있는 경험을 하게 되곤 하지요.

24학년도 수능은 독서, 선택, 문학 모두 수험생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소위 재능총이라 자부하던 아이들, 또는 소거법을 주 전략으로 쓰던 아이들 등 별다른 전략 없이 문제 풀이 위주로 공부했던 아이들 입장에서선 선지가 잘 지워지지 않다 보니 모든 영역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생각지도 못한 점수를 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오답률을 보면 알 수 있듯 **오답률 50% 이상의 중고난도 문제 비중이 1/3**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답률 편차(1위와 10위 편차 : 23수능 50% → 24수능 10%)도 작아져서, 우리 아이들은 매 지문마다 산 넘어 산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 26수능 분석

- 어렵고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26수능(76~55% / 1~10위)은 24수능(73%~62% / 1~10위) 못지않게 난도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고난도 문제의 비중이 또 1/3에 육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 겉보기엔 24수능 같지만 실제로는 23수능과 25수능, 그리고 24수능을 혼합한 것**과 같습니다. 26수능은 등급컷과 상위 오답률 수치만 보면 24수능과 같아 보이지만 그 내용(영역 및 문제 유형 등)을 보면 독서는 23수능을, 문학은 25수능을, 선택은 24수능과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독서:** 최상위 오답률을 독서가 차지하는 건 모든 평가원 시험의 공통점이지만, **24~25학년도엔 독서 <보기> 유형 문제만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문 자체는 평이했다**는 뜻이지요. 이는 **24-6부터 26-9까지 총 6회의 모의평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장 '최근 3개년 모평 오답률'을 참고하세요. 보통 8~9번, 12~13번, 16~17번 문항이 <보기> 유형 문제입니다.) 하지만 **26수능만큼은 마치 23수능처럼 독서 문항 절반이 상위 오답률을 차지합니다.** 이는 23수능처럼 **독서 지문 자체가 어려웠음**을 의미합니다. 분명 평가원은 EBS 제재를 연계했다 하고, 아이들은 그에 발맞춰 공부했음에도 말이지요.
 - 나. 문학:** 23수능은 지나치게 쉬웠고, 24수능은 지나치게 어려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4-6부터 25-9까지의 문학은 **23수능까지의 문학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난 3년 간 독서의 난도는 고정적(물론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26수능이 이 기초를 깨버렸기에 아이들에게 당혹스러운 시험이었을 겁니다.)이었기에 문학과 선택 과목의 난도가 등급컷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23수능과 같이 감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 지문과 문제는 사라지게** 됐지요. 그리고 이런 기초는 이번 26수능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수능 오답률 5~8위에서 26수능 오답률 12~15위로 자리 이동) 즉 **수능 문학도 제대로 배우고 준비해야 하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 다. 선택:** 선택 과목도 문학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배우고 준비해야 하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23수능까지만 해도 화작이나 매체는 지문이나 선지의 난도가 높지 않았고, 문법의 경우 한 문제 당 조건이 많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11문항 10~13분 컷이 충분히 가능했고, 개념이나 분석 공부가 아닌 운영 연습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했지요. 하지만 24-6부터 화작과 매체는 선지에, 문법은 지문이나 <보기>에 조건을 많이 담음으로써 까다로운 영역이 되었습니다. 문법은 교착어의 뿌리, 즉 조사, 어미, 접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묻는 문항까지 출제되고 있지요. 때문에 더 이상 운영 연습만으로 10~13분컷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념부터 제대로 배우고, 분석을 통해 풀이법을 익히며, 운영 연습을 통해 15~16분컷을 순차적으로 완성하는 공부를 한 학생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 26수능 총평과 그에 따른 27수능 대비

1. EBS 공부는 출발선을 갈게 하기 위함이지, 앞서나가기 위함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24학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든 평가원 시험에서 독서는 세 지문 모두, 문학은 7개 중 4개 작품이 EBS 연계였습니다. 수능 당일 발표되는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했으니 공교육과 EBS를 충실히 이행한 학생들에게 무난한 시험'이라는 평가원의 입장 역시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4개 년 등급 컷은 $\pm 6\sim 7$ 점의 변동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24수능과 26수능 수험생의 EBS 연계 공부 부족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독서의 경우 EBS 제재를 활용한 새로운 글과 물음을 이겨내야 한다는 점, 문학의 경우 새로운 물음, 또는 비연계 작품과의 결합을 이겨내야 한다는 점에서 일 년 내내 EBS 연계 공부에 "몰두한" 학생과 "필요한 만큼" 준비한 학생이 연계 공부 덕을 보는 정도는 똑같다 할 것입니다.

2. 한 가지 확실한 건 '많이 풀다보면 잘 되겠지.'라는 안일한 해결책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시험입니다.

24학년도 이전 문학과 선택과목은 기껏해야 오답률이 3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영역에서는 굳이 실력을 쌓으려 할 필요 없이 문제 풀이를 통한 운영 능력(시간 단축)만 잘 갖추고 있으면, 독서와의 진검승부에 충분히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런 친구들은 지금처럼 독서/문학/선택 과목의 편차가 작고, 전 영역에서 40~50% 이상 오답률을 골고루 갖고 있는 시험에서는 절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하겠습니까.

3. 전 영역에 대한 실'력'과 운영 능'력' 향상을 중심에 둔 공부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독서만 어려웠던 23수능으로 회귀할까요? 아니면 25수능처럼 독서가 다시 평이해질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모든 영역이 다 어려울까요? 이젠 어느 게 어떻게 될 거라는 비관도 낙관도 아닌, 그냥 뭘 어떻게 물어봐도 흔들리지 않고 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모두가 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안일한 희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대로 배워서 익히고 열심히 연습한 사람만이 성공한다.'는 독한 마음을 품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독서는 우선 기출 분석을 통해 글을 읽는 '자세'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낮선 지문(리트, 학평 등)에 적용하며 체화해야 하지요. 여기에 사실을 통해 피지컬을 키우는 것도 필수라 하겠습니까. 이때 한 지문 10~14분짜리, 네 지문 36분짜리, 45문항 80분짜리 연습을 적절히 배치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까.

문학은 기출 분석을 통해 물음에 답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익혀야 합니다. 여기에 글의 종류에 따른 감상법도 배워야 하지요. 이를 통해 수능 문학(울고그림)은 순수 문학(갈고다름의 문제)과 달리 논리의 영역(참/거짓)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도나 허용 싸움 이 아닌 참/거짓 싸움을 하게 되어 속도와 정확도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문법은 교착어, 즉 조사와 어미, 접사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이후 여기에서 파생되는 음운론과 형태론, 문장론, 문법 요소 및 담화, 중세 국어의 세부 특징들을 조건과 현상으로 나누어 익혀야지요. 한편 매체나 화작은 기출 분석을 통해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익히는 게 우선입니다. 이후 학평이나 사설 등을 통해 적용 연습을 해야 일정 시간 내 정확도 100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4. 결국 모든 영역에 대해 "뿌리부터 제대로" 배우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바르게 걸을 줄 알아야 멋있게 달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수능 국어가 뭔지도 모르고, 즉 바르게 걷는 법도 배우기 전에 달리는 법만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쉬운 코스에서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만 조금만 코스가 어려워져도 극명히 드러나게 되지요. 또 글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래서 정답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글을 '어떻게' 읽고, 물음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 역시 쉬운 과정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배움의 과정이 고될수록 그 힘이 갖는 파괴력은 수능을 압도할 겁니다. 쉬운 걸 만나길 기대하기 보다는 어떤 걸 만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려 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 확신합니다.

5. 운영 능"력"도 갖춰야지요.

배움은 반드시 제한 시간 내에 점수화되어야 합니다. 이때 머리로 안다고 해서 몸이 만들어지지 않는지요. 실제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전 영역이 골고루 까다로울 때는 운영을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의 결과값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양질의 고난도 사설 콘텐츠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이는 절대 잘 달릴 수 없습니다.

[참고] 최근 3개년 모평 등급컷 및 오답률

▣ 2024학년도

24-6 상위 오답률

*언매

24-6 등급컷

등급	원점수	
	화작	언매
1	96	92
2	89	85
3	81	77
4	71	67
5	56	53

순위	번호	오답률	영역
1	14	64	독서
2	33	63	문학
3	9	60	독서
4	24	59	문학
5	37	54	언매
6	18	54	문학
7	30	52	문학
8	36	45	언매
9	10	44	독서
10	35	43	언매

24-9 상위 오답률

*언매

24-9 등급컷

등급	원점수	
	화작	언매
1	90	88
2	83	81
3	75	73
4	64	63
5	53	51

순위	번호	오답률	영역
1	35	80	언매
2	15	69	독서
3	27	65	문학
4	11	65	독서
5	34	60	문학
6	16	60	독서
7	13	60	독서
8	5	59	독서
9	21	57	문학
10	26	52	문학

▣ 2025학년도

25-6 상위 오답률

*언매

25-6 등급컷

등급	원점수	
	화작	언매
1	86	84
2	78	77
3	70	68
4	60	58
5	47	46

순위	번호	오답률	영역
1	9	79	독서
2	16	78	독서
3	36	78	언매
4	15	75	독서
5	34	68	문학
6	7	66	독서
7	13	64	독서
8	37	62	언매
9	12	61	독서
10	29	57	문학

25-9 상위 오답률

*언매

25-9 등급컷

등급	원점수	
	화작	언매
1	98	96
2	93	92
3	86	85
4	76	75
5	63	62

순위	번호	오답률	영역
1	35	56	언매
2	10	55	독서
3	5	49	독서
4	12	48	독서
5	9	48	독서
6	31	47	문학
7	11	42	독서
8	16	42	독서
9	15	41	독서
10	14	40	독서

▣ 2026학년도

26-6 등급컷

등급	원점수	
	화작	언매
1	96	93
2	90	87
3	82	79
4	73	69
5	58	55

26-6 상위 오답률

*언매

순위	번호	오답률	영역
1	37	72	언매
2	16	69	독서
3	8	65	독서
4	7	54	독서
5	17	53	독서
6	12	50	독서
7	21	45	문학
8	32	44	문학
9	30	42	문학
10	36	41	언매

26-9 등급컷

등급	원점수	
	화작	언매
1	93	89
2	85	81
3	77	73
4	67	63
5	54	51

26-9 상위 오답률

*언매

순위	번호	오답률	영역
1	38	78	언매
2	30	71	문학
3	35	67	언매
4	17	65	독서
5	36	58	언매
6	34	57	문학
7	33	54	문학
8	8	51	독서
9	6	51	독서
10	28	50	문학

화법과 작문

출제 경향

1. 평가원은 선택과목의 편차를 '적당히' 유지하려 한다.

평가원은 선택과목 도입 당시 '선택과목 원점수 조정 방식'이 '공부하기 수월하고 좋은 점수를 받기 쉽다고 여겨지는 선택과목(화법과 작문이겠지요?)으로의 쏠림 현상이나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학습 내용이 어려우며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과목(언어와 매체일 겁니다.)을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일정 부분의 보상을 주'기 위함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때 '일정 부분의 보상'이 목적이므로 편차는 '적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몇 시험은 편차가 너무 크지요. 그래서 출제진은 이 편차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화법과 작문의 난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24수능에서는 오답률 1위와 5위를 화작이 차지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26수능에서는 2위와 7위에 위치하고 있네요.

2. 지문으로 높일 수도, 문제 유형으로 높일 수도...

화법과 작문의 난도를 높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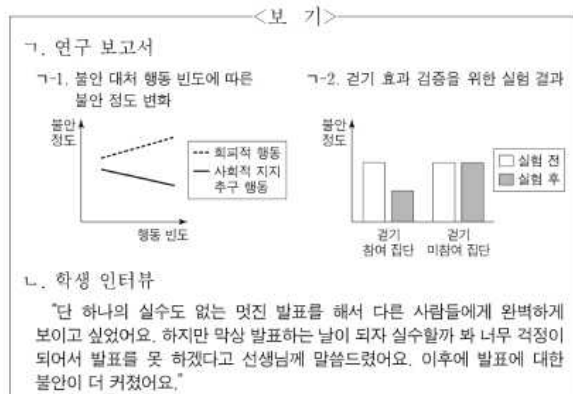
첫째, 지문의 종류를 까다로운 유형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령 상충된 두 입장이 부딪쳐 하나의 입장을 관찰시키든지,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토론이나 협상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주장과 근거를 분리하여 공/자를 명확히 파악하며 읽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둘째, 매번 출제되고 있는 유형 중 '자료 활용하기' 문제와 '조건 충족하기' 문제에서 난도를 높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료 활용하기'의 경우 '자료의 위치', '자료 활용의 타당도 판단'뿐만 아니라 '자료 해석하기'까지 물어볼 수 있기에 출제진 입장에서는 난도를 높이기 용이하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만큼 깊이 있는 사고능력을 갖춰야 하는 과제가 부여됩니다. '조건 충족하기'(반영하기) 역시 조건의 개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난도를 높일 수 있기에 이 문제 유형 역시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26수능] 화작 45번(자료 활용하기 유형, 오답률 70%, 2위)

[26수능] 화작 40번(반영하기 유형, 오답률 58%, 7위)

45.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40. (가), (나)의 답화 내용이 (다)에 반영된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해당 현상을 보여 주는 사례에 대한 '진행자'의 말을 '학생 3'이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다)에서 필자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되었다.
- ② 영상 산업의 성장에 대한 '전문가 1'의 말을 '학생 2'가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다)에서 비평 대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분석한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 ③ 손실 위험에 대한 '전문가 1'의 말을 '학생 2'가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다)에서 필자와 상반된 관점의 주장으로 제시되었다.
- ④ 기술 발달에 대한 '전문가 2'의 말을 '학생 3'이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다)에서 필자의 관점이 지닌 한계로 제시되었다.
- ⑤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회에 대한 '전문가 2'의 말을 '학생 3'이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다)에서 필자와 상반된 관점을 반박한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3. 화작은 시간 싸움입니다.

위에서 평가원이 밝혔듯, '선택과목 원점수 조정 방식'은 언제 선택자에게 일정 부분의 보상을 주기 위함이기에 화작 선택자는 다른 곳에서 스스로 보상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시간'이지요. 실전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공통과목에 할애하여 공통과목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어떻게 하면 화법과 작문에서 단 1분이라도 줄일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과 전략 수립,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려워진 화법과 작문을 고려하여 **11문제는 15분 컷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학습 전략

1. 평가원 기출 집중 분석

화법과 작문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원 기출 10~13개년(2017학년도, 또는 2014학년도부터)을 두고 ‘토론 및 협상’, ‘자료 활용하기 및 조건 충족하기’ 등 난도가 높은 것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풀어 보고 분석하며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확립하는 공부를 추천합니다. 화작은 지문 난도가 거의 없는 대신 발문이나 <보기>, 그리고 선지가 제시하는 조건이 난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들 조건을 명확히 파악하여 정오판단을 하는 연습과 분석 공부 that 제일 중요합니다.

2. 시간 단축을 위한 고민과 연습

화법과 작문은 다 맞힌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단 1분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합평 10~13개년(2016년도, 또는 2013년도부터)을 두고 매주 1~2회 이상 타임 어택 연습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화법과 작문은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음을 알고, 각 문제 유형에 따른 풀이법이나 풀이 순서를 확립하는 게 좋습니다.

언어와 매체

출제 경향

1. 평가원은 선택 과목의 편차를 '적당히' 유지하려 한다.

평가원은 선택과목 도입 당시 '선택과목 원점수 조정방식'이 '공부하기 수월하고 좋은 점수를 받기 쉽다고 여겨지는 선택과목(화법과 작문이겠죠?)으로의 쏠림 현상이나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학습 내용이 어려우며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과목(언어와 매체일 겁니다.)을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일정 부분의 보상을 주'기 위험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때 '일정 부분의 보상'이 목적이므로 편차는 '적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몇 시험은 편차가 너무 크지요. 그래서 출제진은 이 편차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언어와 매체의 난도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2. 문법은 점점 여러 개를 동시에 묻고 있다.

새로운 개념은 없습니다. 새로운 용례마저도 없습니다. 언제 선택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개념에, 기출에서 수없이 봐왔던 용례들로만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평소보다 시간은 더 오래 걸렸고, 정확도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익숙한 용례를 두고 여러 개념을 동시에 물어봄으로써 여러 번의 판단을 거쳐 정답이 도출되게끔 했기 때문(26수능 언제 39번)**입니다. 한편 지문형 문제를 통해 문법 지식뿐만 아니라 독해력을 요하는 문제로 변별력을 확보한 36번 문제 역시 지문이 제시하는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선행되어야 했지요.

[26수능] 언제 39번(조사, 어미, 접사 등 여러 조건 동시 질문 / 오답률 73%, 2위)

[26수능] 언제 36번(지문형 문제 / 오답률 66%, 5위)

3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국어의 의존 형태소에는 접사, 조사, 어미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제시된 자료 ㉠~㉣을 분석해 보자.

- ㉠: 발표가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모두 목소리를 낮췄다.
- ㉡: 비에 젖은 옷들을 말리는 데 시간을 다 빼앗겼다.
- ㉢: 나는 내일 친구랑 만나 미술관이랑 영화관에 가.

- ㉠ ㉢의 '시작되자'와 '낮췄다'의 접미사는 모두 어근에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와는 다른 품사의 단어를 파생하였다.

36.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훈민정음』(해례본)에는 <한글 맞춤법>의 한글 자모 24자 외에 'ㄱ, ㆁ, ㆏, ㆑' 4자가 더 있었다.
- 15세기 국어에서 'ㅁ, ㅂ, ㅅ'의 활용 방식은 초성에서 두 소리의 연쇄로 발음되는 자음군을 나타냈다.
- 15세기 국어의 'ㄷ'은 15세기 국어의 'ㅌ'과 같은 조음 위치의 유성 마찰음을 나타냈다.
- 15세기 국어에서는 경구개음이 자음 체계에 존재하지 않아서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 료>

	㉠	㉡	㉢	㉣	㉤
15세기 국어	앗겨(← 앓기어)	이때	어버시	ㄴ독	즐기디

3. 매체마저 까다롭다.

매체는 매체 속 화법과 작문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새롭지 않습니다. 허나 '매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또는 시행 역사가 짧음으로 인하여 지문과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익숙함보다는 낯선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매 시험마다 신유형이 발견되곤 합니다. 여기에 매체 속 문법 문제까지 하나 들어있다 보니, 까다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정확도도 잡아먹지요.

[26수능] 연매 44번(매체 활용 방식)

4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나)와 달리, 제시된 내용과 관련된 정보에 수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 ② (나)에는 (가)와 달리, 문자 언어로 표현되는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상황에서 느낀 감정과 관련된 그림이 활용되어 있다.
- ③ (가)와 (나)에는 모두, 생산자가 정보를 게시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다.
- ④ (가)와 (나)에는 모두, 한정된 수용자에게만 정보가 제공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모두, 생산된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이 시각적 기호로 표현되어 있다.

[26수능] 연매 43번(매체 속 문법)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답니다'를 사용하여, 도서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는 경험적 사실을 수용자에게 알려 주고 있다.
- ② ㉡: '-어요'를 사용하여, 신청 도서를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문자 발송 주체가 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या'를 사용하여, 책을 수령한 시점이 상호 대차를 재신청한 주의 목요일이었음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④ ㉣: '-아야지'를 사용하여, 유의 상황을 확인해 보는 행위가 실수를 하지 않는 데 필요한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르게요'를 사용하여, 카드 뉴스를 제작해 블로그에도 올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학습 전략

1. [문법] 개념이 선명할수록 선지를 빨리 넘긴다.

지문이나 <보기>, 그리고 조건에서 밝힐 법한 **특정 개념의 원칙적 환경(조건)과 결과는 미리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환경(조건)과 결과, 안긴 문장 종류별 실현 표시 등 하나의 개념에 대한 조건과 결과가 한 장의 사진처럼 기억 속에 자리잡을 만큼 개념을 선명히 익혀야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개념서(마더텅, 다담 등)든, 인강 교재든, 단과 교재든 모든 개념서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니 보고 또 보며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평가원에서 말하는 '보상'이라는 결과물은 '학습 내용이 어려우며 학습 분량이 많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한 수험생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 경향을 고려했을 때, **교착어인 우리 말의 뿌리인 조사, 어미, 접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공부를 게을리해선 안 될 것입니다.**

2. [문법] 평가원 기출 용례를 익혀야 한다.

24~9에 나온 '용꿈'의 '꿈'은 이미 기출에서 파생어로 자주 소개된 용례입니다. 23수능에는 이와 같은 구조인 '춤'이 나오기도 했구요. 또한 25~6에 나온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및 종류가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이미 22수능에 출제되어 오답률 60%를 만들어냈던 만큼, '문장 성분'은 '직관'이 아니라 '서술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결국 새로운 개념도, 용례도 없습니다. 모두 한글맞춤법이나 표준발음법에서 각 조항의 예로 들고 있는 것들을 취사선택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미 지난 기출들에서 모두 소개됐던 것들입니다. **평가원 기출 10~13개년(2017학년도, 또는 2014학년도부터)을 두고 지문이나 <보기>, 선지에서 소개하는 용례들을 해당 개념과 함께 분석하며 익히는 공부를 추천합니다.**

3. [매체] 평가원 기출 분석이 우선입니다.

매체는 역사가 길지 않아, 매 시험마다 새로운 걸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누적될수록 이미 보여줬던 유형을 다시 보여주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게 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2022학년도 예비시행부터 지금까지의 기출 유형에 대해서는 완벽하리만큼 분석하여 익숙한 건 익숙한 대로 빨리 끝내고 낯선 것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자**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덧붙여 **2021년도 이후 학평과 사설 문제집(상상, 한수 등)을 통해 주 1~2회 이상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두고 풀이 순서와 방법에 대해 익숙해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독서

출제 경향

1. EBS 연계율은 높다. 하지만...

24학년도부터 연계율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재’를 활용하여 확장의 방식으로 새 지문을 만들고 있기에, 연계 공부만으로는 독서를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연계율은 높아졌지만, 연계 제감도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에, 평소 기출 분석과 낯선 지문(LEET나 학평 등) 적용을 통한 독해‘력’ 향상의 중요성은 여전히 하겠습니다. 26수능 독서가 어려웠던 이유는 연계율이 낮아서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2026 EBS 수능특강

2026학년도 수능

그러나 고의나 과실 없이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한다. 무과실 책임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법률상의 근거 **담보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의 일종인 담보 책임은 유상 계약, 무자에게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된다. 예컨대 면 급부의 내용은 주택의 공급이고 반대급부의 내용은 대금 지급 같은 품질상의 하자가 있거나,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분양 면적 같은 수량 부족이 발생하면, 분양자는 담보 책임을 지야 한다.

담보 책임은 유상 계약의 등가성 원칙, 즉 급부와 반대급부는 대. 급부에 하자가 있거나 급부의 수량이 부족하면 반대급부에

담보는 유상 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유상 계약의 일종인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 배상이 원칙이지만,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6 EBS 수능특강

2026학년도 수능

열팽창이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 부피 등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나 교량을 설치하지 않으면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될 수 있다. 철을 ㉡ **두는** 것도 여름에 온도가 상승할 때 레일이 팽창하여 일이 수축할 때 공간이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 어떤 온도 T_0 에서 길이 L_0 인 물체의 온도를 T_f 까지 올렸을 때 물체의 길이 변화($L_f - L_0$) 값을 처음 길이 L_0 로 나눈 길이 변화율(길이 변화율)은 온도 변화와 계수(α)의 곱으로 나타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 **얻는** 값이며, 변화량이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다.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합금인 인바(invar)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이며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

2026 EBS 수능특강

2026학년도 수능

칸트는 인격 동일성이란 심적 상태의 연속성으로 설명되기는 말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데카르트가 합리주의 전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혼의 실재성을 확인한 것에 대해 의문을 '나'는 영혼인데 이 영혼은 내부 감각의 대상으로, 물체와 같은 인식되는 내부 감각의 대상인 것에 반해 물체는 감각 기관에 의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는 내적 인식이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한 '나는 영혼의 객관적 속성, 실재성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로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한다.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키며, '인식'은 '알'을 말한다.

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2. 수능 독서가 요구하는 것은 '작관'이 아니라 "이해와 추론"이다.

지문에 정보량이 적을수록 쉬울 거라 생각하는 건 국어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완성된 글에 정보량이 적다는 건 그만큼 부연 설명 없이 논리를 전개한다는 뜻이며, 이를 두고 4~6문항, 20~30개의 질문지를 만든다는 것은 그 안에 생각된 정보(전제)를 묻겠다는 뜻이기에 글을 '이해'하는 게 아닌 '보'는 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는 현 수능 독서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즉 수많은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문제풀이 경험(흔히 피지컬을 키운다고 하지요!!)만으로는 안 됩니다.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익힌 후 다양한 문제풀이 경험도 더해야 하는 것이지요.

한편 독서 <보기> 문제의 경우 '윗글에 대한 이해'라는 조건1)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는 조건2)가 덧붙습니다. 즉 **조건1)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토대로 조건2)를 이해하는 활동이 선행되어야 선지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항상 높은 오답률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6수능 6번(이유 추론하기 유형, 오답률 70%, 3위)

26수능 15번(문단의 중심 내용 이해 유형, 오답률 67%, 3위)

6. (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채권자가 대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③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채권자에게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보증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⑤ 보증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담보 물권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15.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의 함의는 실재성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를까?
- ②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은 어떤 점에서 반박되고 있을까?
- ③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견해인 근거는 무엇일까?
- ④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이 '직접 증명'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 들여야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 ⑤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전제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전제와 다름없는 근거는 무엇일까?

26수능 12번(<보기> 유형, 오답률 78%, 1위)

26수능 17번(<보기> 유형, 오답률 63%, 6위)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만든, 두 종류의 띠 a와 b가 있다.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는 b가 a보다 크고, 두께와 길이는 a, b 모두 같다. 이 띠를 활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띠가 안으로 휘어 물체를 잡는 집게를 만들었다. a를 두 개 사용한 것은 집게 A이고, b를 두 개 사용한 것은 집게 B이다. 온도 T_0 에서 A와 B의 모든 띠는 평평한 형태였다. 이후 온도를 T_1 로 올렸을 때는 B만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T_0 에서 T_1 보다 높은 온도인 T_2 로 온도를 올렸을 때는 A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단,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 온도 변화 외에 힘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보 기>

- 갑:**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런 경우,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야.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지. 즉,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살아 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거든.
- 을:** 그렇지 않아.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본래의 자신과 동일한 인격이야. 비록 프로그램은 신체가 없지만 우리 두뇌와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사고 기능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거든. 인격의 동일성은 어떤 가정도 두지 않고 이러한 사고 기능의 동일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

학습 전략

1. 연계 대비 효과는 있으나 제한적이다. 결국 독해'력' 싸움이다.

‘제재’ 자체를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지문 이해도와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도입부에 대한 이해도가 후반부의 이해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서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EBS 내용이 지문의 도입부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EBS 지문 공부는 이제 **필수!!!**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같은 제재라 하더라도 무엇을 화제로 삼느냐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글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원 독서 지문은 그런 측면에서 모두 새롭지요. 즉 EBS 제재를 활용하기는 하나, 이를 재료 정도로만 사용하고 정작 글은 다른 화제를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신처럼 EBS 지문 준비만 잘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험에 임하면 낯선 느낌 때문에 당황하여 되려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EBS 제재 공부는 기본으로 하되, 출제진이 어떤 원리로 글을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어떤 자세로 지문 정보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독해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때문에 **평가원 기출 지문 분석이 유일무이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한 선배들, 특히 N수생의 review를 정독해 보세요. 대부분 기출은 정답이 기억난다는 이유로 1~2회독 정도만 하고, EBS나 낯선 지문만 찾아다녔던 것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이를 반면교사 삼아 기출을 N회독 하며 글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체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역별로 사용해야 하는 무기를 장착하여 ‘정보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갖춘 것을 성공의 비결로 꼽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독서지문, 그들 입장에서는 작문입니다. 그리고 작문은 일정한 원리를 따라 갑니다. **이 원리를 파악하는 게 1순위! 그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독해 자세를 확립하는 게 2순위!!** 이를 위한 자료는 ‘**평가원 기출 지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외 리트, 사관, 경찰대, 학평, 사설은 **평가원 기출로 확립한 자신의 독해 자세를 낯선 지문에 적용해보는 용도로서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원 이외 지문이 분명 필요합니다. 다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수능 독서 출제진을 이기기 위한 방법은 그들의 논리와 무기를 이해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맙시다.

2. 선지 난도를 조심해야 한다.

선지 난도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하고 왔어도, 질문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면 잘못된 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때문에 **지문의 문장과 선지의 문장을 하나하나 비교하며 참/거짓에 대한 명확히 판단하는 공부를 병행**해야 하지요. 이때 학습 자료는 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들어냈고, 또 선배들이 오답률로써 검증한 ‘**평가원 기출**’이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풀이 후 ‘이 선지를 선택하려면 지문과 선지를 어떻게 대했어야 하지? 다른 오답률이 높은 선지(특히 매력적인 오답 선지)를 이겨내려면 지문과 선지를 어떻게 대했어야 할까?’ 등 **출제진이 원하는 사고와 자신의 사고, 그리고 타인의 사고를 비교**함으로써 투자한 시간 대비 최고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사설은 이렇게 쌓아 올린 실력을 시간 내에 점수화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정답이 기억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출이라는 최고의 콘텐츠를 등한시하고 매번 낯선 지문과 문제만 찾아다니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어진 문제만 푸는 공부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찌보면 제일 편한 공부일 수 있습니다. 조금은 더디고 번거롭더라도 투자한 시간 대비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부법, 즉 기출이라는 검증된 콘텐츠 안에서 **‘분석과 고만’이 뒤따르는 공부를 중심**에 두고, **사설 공부를 추가하는 식의 공부**를 적극 추천합니다.

문학

출제 경향

1. 24학년도부터 선지 난도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독서 대비 비연계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24학년도부터 문학이 까다로워졌다는 건 모두가 압니다. 그리고 이 기조는 지금도 유지되며 시간과 정확도를 꽤 많이 잡아먹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건 “순수” 문학이 아니라 “수능” 문학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즉 ‘글’에 대한 나의 이해만으로 물음에 답하는 아이들에게 수능 문학은 “비논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시험일수록 더더지고 또 정확도도 낮아지게 되지요. 하지만 ‘<보기>를 바탕으로’ 글을 이해한 후, ‘이를 기준으로’ 물음에 답해야 한다는 수능 문학만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수능 문학은 “논리”의 영역이 됩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시험을 만나도 일정한 시간 소요와 완벽한 정확도를 갖게 되지요. 가령 아래 21번 문항의 경우, 정답 선지가 틀린 이유를 글이 아닌 <보기>에서 찾으려 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물음에 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수능 문학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26수능 고전시가(연계+비연계, 오답률 51%, 11위)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밤음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 (가)는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어두운 밤으로 표상하고,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이러한 소망은 소금을 뿌리며 그리운 이를 찾아 다니는 행동으로 형상화된다. (나)는 자연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이러한 성찰은 자연물과 내면을 동일시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그려 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 ① (가)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은,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다니며 그리운 존재를 찾고 있는 암울한 현실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오던 길’을 ‘소금들이’ ‘완히 비취 주’는 것은, ‘두고 온 것들’이 되살아날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빛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암시하겠군.
- ③ (나)에서 ‘반짝’이는 ‘일새’와 ‘그늘’을 함께 지닌 ‘감나무’ 아래에 ‘평상을 놓’는 것은, 밤음과 어두움이 어우러져 있는 자연에서 내면에 대한 성찰을 이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군.
- ④ (가)에서 ‘별 하나 눈뜨지 않’는 밤은 함께하던 이가 보이지 않는 상실의 상황을, (나)에서 ‘잠 뒤척’이는 ‘밤’은 마음이 감춰려 ‘익어’ 가는 데 필요한 성숙의 시간을 의미하겠군.
- ⑤ (가)에서 ‘빛나는 때를 위해’ ‘저녁’부터 ‘새벽’까지 길을 걷는 행동과, (나)에서 ‘질푸른 감들이’ ‘등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은 모두, 밝음이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26수능 고전소설(연계, 오답률 50%, 12위)

21.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수궁가」는 우화에서 판소리 사설로 발전한 작품입니다. 동물들이 인물로 등장하는 우화 속 세상에 청중의 현실 속 다양한 요소를 중첩하는 방식으로 이야기의 변모가 이루어졌어요. 이로써 부정적 면모를 지닌 다양한 인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거나, 현실감을 부여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거나, 현실이라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으로 과장되게 표현하여 청중의 흥미를 높였어요.

- ① ‘사냥개’에 대한 토끼의 평가에서, 현실에서 사냥개가 사람에게 길들여진 것을 우화 속 상황에 중첩함으로써 강자의 환심을 사 이익을 얻는 인간에 대한 비판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② 자라가 ‘동의보감’을 떠올린 데서, 현실의 의서를 우화 속 상황에 중첩함으로써 명약을 탐하는 속내를 지식을 내세워 숨기는 위선적 인간에 대한 비판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③ ‘포수’에 대한 호랑이의 태도에서, 현실의 인간이 지닌 힘을 우화 속 인물들의 위계질서에 중첩함으로써 권력자가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 위신을 잃는 상황이 강조됨을 알 수 있군.
- ④ 호랑이가 ‘선영’을 언급한 데서, 현실의 윤리를 우화 속 인물이 내세운 구실에 중첩함으로써 자손의 도리를 만하며 곤란한 처지를 벗어나려는 인물의 절박한 상황이 강조됨을 알 수 있군.
- ⑤ 호랑이가 ‘해남’에서 ‘압록강’ 가까이 댈 데서, 현실의 지명을 우화 속 공간에 중첩함으로써 실제라면 단숨에 닿기 불가능한 거리를 이동하는 상황이 과장되게 표현된 것임을 알 수 있군.

둘째, 문학은 독서에 비해 선지의 길이가 상당합니다. 때문에 이를 대하는 자세에 따라 정확도와 속도가 모두 달라질 수 있지요. 문학 선지의 경우 대부분이 문장의 왼쪽이 질문이 되고 오른쪽이 답변이 되는데, 오류의 원인이 답변에 있을 수도, 질문에 있을 수도(아래 34번 유형), 또 <보기>라는 조건을 따르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할지 미리 정하고 체화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너무 많은 활동 끝에 정답을 찾기도, 또는 결국 못 찾기도 하는 것이지요. 한편 **문학 개념에 대한 이해는 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선지에 무게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가령 아래 31번 유형의 경우 두 작품이 고전시가라는 점에서 대구가! 또 대조는 항상 판단한다는 선지를 대하는 자세나 전략 등이 정답 선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26수능 현대시(연계+비연계, 오답률 48%, 13위)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시가들은 경험의 실상과 외적 대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한다. (가)는 장면 속에서 묘사된 행위를 통해 정서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고, 화자를 대상화하며 해석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나)와 (다)는 동일한 소재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며,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표현을 통해 대상이 그 자체로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하지만 (나)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대상과 행위에 담아내고, (다)는 대상으로부터 화자의 정서가 촉발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얼음물에 빠져 '버선 행진' 다 적시는 대목은 경험을 실감 나게 보여 주면서 화자를 장면 속에서 대상화하여 '동태가 되었다'라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군.
- ② (나)는 정월 보름날에 '큰 잔에 술을' 붓는 행위로 예를 갖추며 연을 '마지막 전송'하는 모습을 통해 평안함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담아내는군.
- ③ (다)에서 연이 '쫓아올라 구름'에 걸치는 것을 보고 화자가 연줄의 힘을 빌려 '먼 데 임'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대상의 역동성이 화자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가)에서 '가슴에 열'이 나서 '냉수'를 먹는 행위는 임무 수행에서 느낄 수 있는 고충을 드러내고, (나)에서 근심을 '세세히 적'는 행위는 문제 해소를 원하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나)는 연이 '굴뚝뒤편 뒤틀어적' 올라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다)는 연의 재료를 '강원도 설화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크기'까지 언급함으로써 대상 자체를 부각하는군.

26수능 고전시가(연계+비연계, 오답률 48%, 15위)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남의 말을 인용하여 목적지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대구와 대조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화자의 괴로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상의 존재에 빗대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 현상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방위의 의미를 포함한 두 어휘를 사용하여 대상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색채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배경 속에서 대상의 움직임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2. EBS 연계 체감도는 동일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연계성이 강해졌다.

기존 방식으로 일곱 개의 작품 중 세 작품이 EBS와 연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계율이 100에 가까워진 독서에 비해 비연계성이 강해져 버렸습니다. 현장에서 처음 만나는 작품을 두고 문학의 고유 언어인 함축적 언어를 이해하며 내용과 주제, 표현 등을 잡는 감상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 거지요. 거기에 문학 개념에 대한 이해를 요하는 문제들, 선지 자체의 난도를 지니고 있는 문제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EBS 연계 작품 공부만으로는 수능 문학을 온전히 이겨내기가 어려움**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학습전략

1. EBS 공부는 지문을 통한 지문 읽기 간소화의 효과가 있다.

시 문학은 준비해 간 만큼 ‘곧장 문제풀이로 들어갈 수 있다.’, ‘정답 선지를 쉬이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품의 창작 배경, 주제와 주요 흐름, 주요 표현 기법 등에 초점을 둔 공부를 해야 합니다. 현대시는 어느 게 나올 거라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48개 작품 모두를, 고전시가는 연시조와 가사가 나오므로 46개 작품 중 16개 작품 위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설 문학은 다른 장면이 나오기에, EBS 장면을 익히기보다는 줄거리와 주요 인물에 대한 정리에 초점에 두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새로운 장면을 만나도 이미 알고 있는 줄거리와 인물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지문 읽기를 간소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요.

2. 문학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갈래별 작품 감상법을 익히며 선지를 읽는 힘을 키워야 한다.

아무리 알고 있는 작품을 만나도 출제 의도는 온전히 <보기>와 선지에 있으므로 이를 읽어내는 힘이 부족하면 시간과 정확도 모두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머지 비연계 작품은 현장에서 이겨내야 하고, 또 주로 이 작품군에서 변별력이 생기므로 진짜 중요한 건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을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보기>와 선지에 담긴 의도를 읽어낼 줄 아는 힘’을 준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24-9에서 아래 문제는 작품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기>가 작품에 대한 비평이라는 점, 선지 모두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한 선지들이라는 점에서 <보기>를 통해 선지에서 말하는 ‘고고한’은 (가)의 특징이지, (나)의 특징이 아님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TOP	번호	①	②	③	④	⑤
5	비율	39.4	9.7	22.8	18.2	9.9

【<보기> 및 선지 이해】

〈보기〉

고전 시가에서 자연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 (가)의 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 세계로 그려지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나)의 자연은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적 풍류의 장으로,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치는 곳이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멋이 고조된다.

사고 ‘자연’과 ‘신선의 이미지’는 공통점! 나머지는 차이점!!

① [정답] (가)의 ‘용’은 /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생매’는 / 고고한 취향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군.

사고1) ‘탈속적’은 (가)에 오)가 맞아. 그런데 ‘고고한 가치’도 (가)의 오)잖아?! (나)의 ‘고고한 취향’에서 X 땀은 이 사고로 이 선지를 선택했어.

사고2) (가)에서 원)에 신선의 이미지가 오면, 오)에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가 올 수 있어. (가)의 원) ‘용’은 신선의 이미지라 볼 수 있으니 오)에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한 소재’임을 부정할 수 없겠다.

사고3) 하지만 (나)는 원)에 ‘신선의 이미지’가 오면, 오)에 ‘멋 고조’가 와야 해. ‘멋 고조’를 억지스레 ‘고고한 취향’으로 해석하고 싶어도, 원)의 ‘생매’는 ‘평 사냥을 위한 매’니까, 신선의 이미지가 아니란다.

그러므로 <보기>대로 작품을 읽어내는 ‘감상력’, 문학 ‘개념’에 대한 이해, ‘선지를 읽는 힘’이라는 세 가지 능력을 균형감 있게 갖추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때론 감상력으로, 때론 개념으로, 때론 선지를 읽는 힘으로 주어진 문제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 역시 기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원 기출(최소 2017학년도부터)을 두고 <보기>와 선지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OX point를 찾고, 이 선지가 맞으려면 지문에 뭐가 어떻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후 지문에서 확인하는 식의 공부를 하세요.

결론

1. EBS 전 제제에 대해 익숙해지는 공부를 해야 한다.

2. 기출 분석을 통해 지문 및 선지 난도에도 대비해야 한다.

3.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앞선 두 해결책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중고난도 문제의 비율이 높아지고, 오답률 편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머리로 아는 것과 몸이 아는 게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험에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실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면 안 됩니다. 수능은 리듬감이 중요하다는 걸 모두 알고 있지요, 그런데 한 번 느려진 리듬은 다시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중반에 빨리 달리다가, 막판에 진중하게 걸어야 하지요. 이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겨낼 수 있는 영역 우선! 또는 영역 불문하고 평이하다 싶은 걸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를 뒤에서 해결하자는 전략을 써야 한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지요.

예전 수능처럼 쉬운 문학 및 선택(오답률 10위 안에 들어가는 문제조차 없는 상황)과 어려운 영역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전략이랄 것도 없이 몸이 알아서 따라갑니다. 하지만 요즘 평가원 시험처럼 중고난도 지문과 문제들이 어디에서 불쑥 나를 괴롭힐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머리로 아는 게 몸으로도 실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역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틈틈이 '진짜같은 수능 현장에서의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다양한 전략('선택 → 독서 세 지문 → 문학 세 지문 → 6문제짜리 문학 지문 → 6문제짜리 독서 지문'과 같은 풀이 순서)을 시험해 보고, 또 그 전략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연습을 통해 수능용 몸을 만들고 수능 당일 역시 그 몸으로 기존 연습과 똑같이 하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조언들이 수험생 여러분이 오늘을 계획하고, 다짐하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 함께하는 조력자로서, 진심을 다해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 시대인재 국어 강사 황용일

龍의 주도

III 미르원스국어 Review

Review_2026

점수의 높낮이를 떠나,

시간이 부족해요. 점수의 변동 폭이 커요. 느낌으로만 풀어서 불안해요. 뭘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등등.....

'시작'의 이유는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샘을 믿고, 또 자신을 믿고 끝까지 따라와줬다는 '과정'은 동일했습니다.

선배들의 목소리를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이를 위해 선배들의 수업 Review뿐만 아니라 공부 및 수능 Review도 함께 소개합니다.

샘의 목소리가

2026학년도 선배들의 마음에 와닿았듯

2027학년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길 기대합니다.

미르원스국어 Review_2026

김준O / 전과목 -1개 > ★★★★★



수능 직후

저는 목동시대인재에서 황용일 선생님 단과 수업을 들은 강서고등학교 졸업생 김준O입니다. 선생님의 수업에서 제일 도움을 많이 받은 영역은 단연 문학이었습니다. **문학 영역의 경우, 정답률은 기본으로 하고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문학을 푸는 속도가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정말 많이 빨라졌습니다.

소설의 경우, 인물과 갈등을 중심으로, 시의 경우 정서를 중심으로 읽어 나가고 보기라는 객관적 단서를 중심으로 선지를 판단하는 훈련을 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선생님의 수업 중에서 문학 문제풀이 속도를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선지를 판단하는 기준, 먼저 볼 선지를 찾는 기준**이었습니다. 기존에 저는 1번 선지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비교를 하고 소거법도 자주 사용하였지만,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큰 틀에서 어떤 작품, 갈래에서는 어떤 선지를 먼저 봐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선지를 보기 시작하니 문학을 푸는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졌고,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 헛갈릴 일 역시 없어졌습니다.

선지를 제대로 보는 훈련을 황용일 선생님과 많이 하다 보니 당황할 일 역시 없어졌습니다. <보기>와 선지의 오른쪽, 선지의 왼쪽과 오른쪽, 지문과 선지의 왼쪽 순서대로 길고 복잡한 선지를 쪼개서 보다 보니 선지를 오독할 일도 아예 없어지고 복잡하고 긴 선지를 두고 오래 고민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후배들에게!

국어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기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설이나 교육청과는 쥘리티나 논리의 면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며, 수능이라는 시험을 잘 보려면 **기출문제 선지의 논리에 익숙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국어는 시험의 중대성이 어마어마하기에 애매함이라는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시험입니다. 이것이 사실, 교육청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출 공부를 통해 선지보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선지를 읽고 답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답에 확신을 가지고 손가락을 걸고 넘어가는 훈련까지 포함된다 고 생각합니다.

황용일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이러한 선지 보는 힘을 기를 수 있었고 **옛날엔 실제로도 불안해서 모든 선지를 다 확인하고 넘어가서 한 지문을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 했던** 저도 모든 시험에서 안정적으로 모든 지문을 다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역	한국사	국어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표준점수		145					
백분위		100					
등급	1	1	1	1	1	1	1



수능 직후

안녕하세요, 대치 시대 재종에서 1년간 황용일쌤 수업 들은 학생입니다. 사실 전 국어라는 과목을 굳이 사교육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강했어서, “국어 강의”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남들 다 들으니까, 유명하다고 하니까, 몇몇 인강 사이트들이나 이름난 학원에서 인지도 있는 국어 강사의 수업을 몇 번 들어봤는데 수업 이후로 든 생각은 “그럼 그렇지”였습니다. 호기심을 가지라거나, 잘 주목해서 읽으라는 등 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억지스러운 태도들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황용일 선생님의 강의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용일쌤 수업은 가히 “전무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가 포괄적 서술인데 선지가 구체적 서술이면 최소 의심 최대 선택”, “원오 모순 및 + - 모순”, “정보 전달 층위 오류” 등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태도들을 아낌없이 알려주시고, 특유의 재미난 입담을 통해 수업을 지루하지 않게 이끌어주셨습니다.**

황용일 선생님의 문학수업은 MBTI 극T여서 공감을 하기가 힘든 친구들이 특히 좋아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감능력과 감상능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게 부족하더라도 마치 “논리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문학 문제를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재종에서는 문학 수업만 듣긴 했지만, 가끔씩 비문학에 대해 언급하실 때에도 “예외표지에 적혀처리”, “상의/하의 관계”, “종속/대등 관계” 등 정말 유용한 태도들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덕분에 (현시점기준) 꽤 어려웠다는 여론이 우세한 **26수능 국어도 가볍게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성적표 나오면 카톡으로 인증해드릴게요!).

국어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시는 용일쌤! 1등급 정도만 받는 학생까지 확실한 만점을 받게 해주시는 용일쌤! 국어 성적이 불안한 학생이 있다면 자신있게 대한민국 1등 국어 강사 용일쌤의 수업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후배들에게!

1. **국어의 시작과 끝은 기출분석입니다.** 기출 n회독을 하다보면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는 n회독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한 학생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저도 그랬거든요). 기출을 n회독하라는 말은 **문제만 n번 풀라는 게 아니라 “분석”을 n번 하라는** 겁니다. 회독의 목적을 문풀에만 두면 당연히 지겹고 기억에 의존해 풀게 됩니다. 하지만 회독의 목적을 “분석”에 두면 **“이번엔 어떤 출제포인트를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과정이 전혀 지루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기출은 보면 볼수록 새로운 출제포인트와 태도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수능 국어는 “러프함”과 “꼼꼼함”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글자 하나하나 파고들려고 하면 사실 어떤 선지든 애매한 포인트들은 굳이 찾으려면 꼭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런 포인트들을 너무 파고들기보다는, **큰 틀에서 사고한 게 맞는지 점검하는, 즉 “러프함”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큰 틀에서도 벗어나는 문제가 일부 사설에서 가끔 등장하긴 하지만요..). 물론 **“꼼꼼함” 또한 중요합니다. 선지의 처음과 끝만 보다가 안쪽에 있는 내용을 놓칠 수도 있고, 오)에만 집중하다가 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참 모순적으로 느껴질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다보면 이런 “직관”과 “균형”마저도 구체적인 태도로서 체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매일 국어 공부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워낙 본능적으로 다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더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

4. 국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운영 능력이 특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본인만의 루틴을 확실하게 설정해두고, 이에 맞춰서 어떤 실모를 풀든 항상 실전 수능이라 생각하고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직후

안녕하세요. 대치에서 단과 들었던 임동O입니다.

1. 문학에서의 정확성과 속도

이전까지는 체계적으로 문학을 배운 적이 없어 **감에만 의존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쌤 수업을 듣고 난 후, 시와 소설에 대한 여러 개념을 배우고 보기 활용법, 선지를 보는 방법 등 여러 무기들을 체화한 **이후에는 문학 풀 때 정확한 정답 근거를 떠올리면서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도, 평소처럼 A가 아니라 B다 라는 것들이 바로바로 떠올라 **문학에서 정말 많은 시간 단축**을 했습니다.

2. 도입부 독해의 중요성 + 표시 습관

선생님 독서 수업에서 하나만 꼽으라면, 도입부 기반 문단별 독해라고 생각합니다. **도입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 화제를 머릿속에 각인시킨 후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중심으로 독해하는 습관**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쌤께서 독서 지문 읽을 때 표시하면 좋은 팁들을 주시는데, 특히 예외표지와 요건 효과가 이번 수능에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3. 풍부한 콘텐츠와 진심이 느껴지는 수업

제 생각엔 쌤께서는 정말 수업에 진심이신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ㅋㅋㅋ 여타 다른 국어 수업들에서는 그냥 의미없는 사설 양치기 자료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쌤께서는 모든 교재에 대해 직접 작성하신 voice를 나누어주십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후배들에게!

국어라는 과목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한다면,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임은 분명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3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첫째, 쌤 수업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들을 때는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풀지? 굳이 이렇게까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습 수업을 듣다 보면 저절로 무기들이 체화되어, 쌤처럼 푸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능장에서 쌤의 목소리가 들리는 느낌 **이에요ㅎㅎ**

둘째, 사설 콘텐츠에만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모 근처부터는 정말 온갖 회사에서 모의고사들이 쏟아질 텐데, 그런 모의고사들은 일종의 오염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원으로 익힌 바람직한 생각들을 이상하게 왜곡시킬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사설 모의고사는 운영연습 용도로, 주 1~2개 정도만 푸는 것을 추천 드리고, 나머지 국어 공부는 기출 분석과 쌤 voice 복습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셋째, 성적이 안 나온다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성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고3 첫 3모, 중요한 9모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실력이 느는 것은 시험을 망한 이후 어떻게 부족한 점을 채우느냐에 달려 있더라고요.**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시험지를 계기 삼아 정말 나의 치부를 하나하나 뜯어본다는 마인드로 분석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약점을 찾아나가다 보면, 수능장에서 최고점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

김지O / 언매 100점 / 가톨릭대 의예과 합격 > ★★★★★



수능 직후

안녕하세요! 2025년 대치에서 수강했던 김지O입니다. **진짜 저 올해 초에 문학 지문 하나 못 읽고 날릴 정도로 못했었는데, 선생님 수업 듣고 6평 100점에 수능까지 100점!** 받았습니다! (9평 망한 건 안 비밀) 수업도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하나하나 다 알맹이 있는 내용들이라 너무 좋았어요.

제가 원래 공감을 잘 못해서 문학을 특히 힘들어했는데,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처음으로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하고 감이 좀 잡혔던 것 같아요. 수업이 재밌으면서도 알맹이가 짹 차 있어서 실전에서 바로 써먹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강의 목차가 요소별로 딱딱 나뉘어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연습하기도 편했고요. 후반 부에는 미르원s보이스로 자습할 때마다 진짜 **선생님이 옆에서 바로 설명해주는 느낌**이라 집중이 훨씬 잘 됐어요.

특히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용의주도로 기출을 계속 보완하면서 채워넣을 수 있었고, **교재마다 미르원s보이스가 있으니깐 깊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후배들에게!

후배들아! 나도 처음에는 국어가 항상 불안했거든? 근데, 용일쌤 수업 들으니까 진짜 잘 풀리고 걱정이 없어지더라. 후반에는 서바 항상 95점 이상이었고, 결국 수능도 100점 받았어. 지금은 힘들겠지만, 용일쌤 믿고 잘 따르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응원한다!

영역	한국사	국어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표준점수		147
백분위		100
등급	1	1

김현O / 언매 100점 > ★★★★★



수능 직후

반수 문학 들었는데 **비문학에 비해 문학은 감에 의존하여 선지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문학에서도 근거를 잡고 푸는 방법을 선생님의 사고를 따라가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뿐 아니라 서바이벌이나 월레고사 문제도 선생님의 사고가 정리되어 있는 해설지를 주셔서 반수임에도 빠르게 사고를 체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근거를 찾으며 푸느라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익숙해지니 문학에서 의문사하는 일이 줄어들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을 보며 평가원이 어떤 스타일로 오답선지에서 학생들을 낚는지 분류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문학은 글을 읽으며 이 부분은 무조건 문제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나중에 문제에 나왔을 때 ‘아 이거 아까 몇 문단에 있는 그 부분이구나.’ 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학은 보기를 먼저 읽고 본문을 읽는 것이 관점 및 내용 파악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작품의 주제가 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기의 도움을 받고 이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승O / 3~4등급 → 연매 93점(1등급) > ★★★★★



수능 직후

저는 대구다원에서 고2 때부터 현역 시절까지 2년 동안 황용일 선생님 수업을 들은 유승O입니다. 처음엔 국어가 '감'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만 많이 풀고 모의고사만 반복하면 된다고 믿었지만, 성적은 늘 4등급, 잘 나와야 3등급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황용일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었고, 첫 수업부터 "내가 알던 국어는 뭐였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독서와 문학 모두에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는데, 먼저 독서는 예전처럼 그냥 쪽 읽는 방식이 아니라 도입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문예술 / 법 / 사회문화 / 과학기술 영역별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무기'를 체계화하게 되었습니다. 지문을 읽으며 공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읽고, 관계식과 순서 싸움을 정리하는 방식이 몸에 익으니 문제만 봐도 "이건 큰 그림 싸움이다", "이건 순서 문제구나"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은 문학입니다. 용일쌤 문학은 정말 최고예요. 시에서는 '팩트'보다 '정서 싸움'을, 소설에서는 갈등의 축과 인물 캐릭터 분석을 중심으로 무기를 적용하니 문제 해결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보기> 문제 역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알면 알수록 국어가 재미있는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주 금요일 수업이 항상 기다려졌어요. 학원에 오는 게 즐거웠고, 매번 무언가를 얻어간다는 느낌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고2 시절 4등급에서 시작했지만, 선생님 수업을 들으며 고3 내내 모의고사 1등급을 놓친 적이 없었고 서바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수업 콘텐츠도 뛰어나고, 특히 '미르원 보이스'는 선생님의 사고 흐름을 따라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매 수업마다 일정한 '무기'를 바탕으로 가르쳐주셔서 다양한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국어는 황용일 선생님이 정말 최고예요!!

후배들에게!

국어는 절대 '감'으로 풀리는 과목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엔 문제만 많이 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된 독해 방식과 사고 흐름을 배우고 나서야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서에서는 지문을 읽을 때 분야별로 핵심 무기(공차 파악, 요건-효과 구조, 관계식 정리, 순서 싸움 등)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익숙해지면 문제만 봐도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문학에서는 '정서 흐름'과 '갈등의 축'을 중심으로 읽는 연습을 하세요! 표면 정보보다 텍스트의 핵심 감정과 인물의 움직임을 잡으면 문제 해결이 훨씬 빨라졌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같은 방식으로 읽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양보다 '방법의 누적'이에요.

저도 4등급에서 시작했지만 올바른 독해 방식에 익숙해지니 고3 때는 모의고사 1등급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국어는 알고 보면 정말 논리적인 과목이에요. 황용일 선생님의 수업을 잘 따라가고 특히 선생님의 미르원 보이스를 많이 읽어보세요. 그 무기를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해 보세요. 반드시 성과가 날 거예요. 어느새 여러분도 황용일 주니어가 되어있을 겁니다! 서바 치는 날에도 서바만 치고 가지 말고 꼭 선생님의 해설강의까지 꼭 다 들으세요. 얻어갈 게 진짜 많답니다!! 정말이지 황용일 선생님만 믿고 따라가세요.

2027학년도 수험생 여러분, 노력한 만큼 국어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에요 !!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김서O / 4등급 → 화작 89점(1등급) > ★★★★★



수능 직후

선생님, 대전시대에서 수강했던 김서O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처음으로 국어 1등급도 받아보고**, 지난 1년 동안 사고 체계 역시 훨씬 넓어지고 단단해졌어요. 매 수업마다 선생님의 진심과 열의를 느낄 수 있어서 저도 더 몰입하게 되고, 진심을 다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때는 제 타임어택 연습 부족과 운영 능력 미숙으로 성적이 정체되기도 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용기' 교재로 사고법을 싹 정리하고 나니 **길이 흰히 트이는 것처럼 문제가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덕분에 수능 전 마지막 서바이벌에서 지금까지 본 서바 중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어려웠던 이번 수능에서도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 기대하지 못했을 점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해주신 황용일 선생님,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후배들에게!

벌써 2026년, 어느새 여러분도 수능 국어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네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가 이 길을 걸어오며 느꼈던 것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국어는 감으로 푸는 과목이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논리보다 감에 의존해 공부 아닌 공부를 해왔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왜 국어 점수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답답함을 늘 안고 있었죠. **그러다 황용일 선생님 수업을 들으며 수능 국어는 철저히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과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제 공부 방식과 성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년 4등급이던 제가 고3 첫 3월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1등급을 받았거든요. 혹시 저처럼 '감'을 믿고 공부하던 분들이 있다면, 과감히 그 생각을 내려놓고 새로운 공부의 첫걸음을 내디뎠으면 합니다.**

독서에서는 지문을 대하는 기본 태도와 구조를 인식하는 법을 배워 어떤 지문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독해력을 갖추 수 있었고, 문학에서는 어디에서도 듣기 어려운, 말 그대로 수능 문학의 필승법이라 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 활용법을 배우며 문제 풀이가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또 국어 성적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면, 선생님께서 매 모의고사 전에 배부하시는 '용기' 교재를 꼭 활용해 보세요. 고난도 기출과 선생님의 사고법이 정리돼 있어, 시험 일주일 전 사고 흐름을 다시 잡기에 정말 좋은 자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 뒤 수능을 보게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듯,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역사를 써 나가길 바랍니다.

김서O / 언매 94점 > ★★★★★



수능 직후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2교시 목동 D반 앞자리에서 수업 듣던 김서O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 인사드린 쏫컷 여학생인데 기억하시려나요ㅎㅎ 어제 국어 94점으로 나쁘지 않게 본 것 같아요! 문학은 다 맞았구요, 올해 선생님 덕을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서 감사인사 드리려고 합니다!ㅜㅜ

사실 저는 작년 현역 때는 국어는 재능이라 생각하던 학생이었어요. 국어 모의고사는 공부를 안 해도 항상 1등급이었고 국어 학원에서 듣는 수업은 저한테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수능에서 90점으로 첫 2등급을 받고 재수를 시작하면서도 제게 무언가 부족한 건 알겠는데 국어라는 과목을 잘 보려면 어떤 공부가 필요한 건지 감이 전혀 안 오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선생님의 첫 수업을 듣고는 '아..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아무리 재능으로 승부를 봤다고 해도 평가원은 분명 수능이라는 시험을 아무리 재능의 차이가 있어도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게 만들 거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재능을 이길 만큼의 공부를 국어라는 과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의문이었거든요. 첫 수업에서 문제의 조건인 보기의 중요성이나 문학에서 선지 원오 판단 등등을 설명해주신 게 잊히지가 않아요.

저는 감성보다는 논리가 중요한 사람이라 더욱이 국어와는 성질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다 너무 추상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근거는 없다고 느꼈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의 시문학, 소설문학 수업을 꼭 듣다보니 정말 대놓고 보이는 평가원의 논리들에 문학 공부가 처음으로 재밌었어요. 기출 분석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예 모르던 제가 선생님의 수업과 교재를 통해 스스로 해보니 아 그렇구나! 와... 이거네.. 등의 감탄을 할 정도였어요. 선생님 첫 수업 때 프린트에 있던 수업 후기들에서 다들 시험 보면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는게 신박해서 꼭 기억하고 있었는데 정말 공부를 하다보니 문제를 풀 때마다 저절로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고 따라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기도 했어요ㅎㅎ

중간중간 고비들도 분명 있었지만 제 재수생활을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 선생님께 정말 많이 배웠고 누구보다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유강O / 언매 92점 > ★★★★★



수능 직후

대전시대인재에서 단과 들은 대성고 유강O 학생입니다. 저 수능 전교 1등이에요. 감사합니다.

영역	한국사	국어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표준점수		139
백분위		99
등급	1	1

김종O / 3등급 → 연매 92점(1등급) > ★★★★★



수능 직후

안녕하세요? 대치 다원 영과고반에서 수업을 들었던 김종O 학생입니다. '감히 인간이' 같은 거 대답 잘해서 칭찬받았던 학생이에요. 저는 영재학교에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공부를 하다가 **7월부터 수능 공부를 시작했어요**. 수시로 서울대가 안정적인긴 했지만, 연세대 최저 대비 혹은 서울대의 다른 과를 가게 될 수도 있어서 나름 진지한 마음으로 임했어요. 수업 때도 대충 티가 났듯이, **저는 네 달동 안 드레곤, 용의주도, E무기를 빠짐없이 다 푼 열정적인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연매 92점이라는 (제겐)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로 현역을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70점대 3등급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비약적인 성장임이 분명해요**. 긴장을 덜 했음에도, 막상 현장에서 첫 교시에 시험지를 대면하니 글이 정말 안 읽히더라고요. 그럼에도 **평소에 긴장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쌓아두었기에 모든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풀었던 모든 교재와 들었던 모든 강의의 도움을 받았지만, 특히 E무기 '수궁가'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해 보니 'E무기 고전소설' 교재에 수궁가 문제가 세 세트나 수록되어 있었고, 제가 용케도 다 풀어냈네요. 2010년 6모 문제에서 두 개를 틀렸는데, 이때 작품의 특정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수정할 수 있어서 연계 대비가 더 탄탄히 됐던 것 같아요. 타 연계 교재와 다른 E무기 교재의 장점이 되겠네요. 덕분에 범 내려온다에서 노래가 들려서 집중이 깨질 거들도 없이 빠르게 풀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독서에서, **첫 문단 정의를 다시 보라는 말씀을 머리에 새겼더니 독서에서 한 문제도 안 틀리는 경이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영재고생이다 보니 합금 문제에서는 마냥 싱글벙글 풀었고..ㅋㅋ (가)(나) 지문과 칸트 지문에선 지문을 온전히 이해를 못 했는데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무기들로 잘 풀어냈어요. 하의어는 상의어로 치환하기: 보기의 매매 계약 보자마자 유상 계약으로 치환하기, (가)(나) 관계 지문에서 확인한 다음에 문제 들어가기: (나)의 끝 부분에 (가)의 첫 부분인 법 해석이 연결되는 걸 지문 읽는 중에 파악해서 더 수월했어요. 또 '연대 보증 특약'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한 번 읽고 잡기 힘들었는데, 용어 정의 다시 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새기고 여러 번 봐가면서 결국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필요한 요건(보증 계약서, 서명)에 집중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끝으로, **수업 전후로 학생들을 응원해 주시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간혹 독설이 학생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고 자극적인 말들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용일쌤처럼 학생들을 보듬어 주시는 분들이 더 좋더라고요. 한명한명 상황이 어떤지 물어봐주시고,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해주셔서 집에 가서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곤 했습니다**. 수업 중에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짜릿했구요. 반 년동안 알차고 재밌게 국어를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좋은 수업 만들며 지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후배들에게!

저의 경험담은 다소 특별해서 저와 비슷한 상황의 후배들이 있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영재학교에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공부를 하며 수능 또는 모의평가 국어 공부는 전혀 접해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7월부터 황용일 선생님 단과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국어는 이 수업 하나만으로 준비해서 수능 때 연매 92점을 받았습니다. (독서 -0, 문학 -5, 연매 -3) 국어 공부를 시작하던 여름에는 70점대 3등급 수준이었어요. 저는 수시가 있는 상황이어서 긴장을 덜 했음에도, 막상 현장에서 첫 교시에 시험지를 대면하니 글이 정말 안 읽히더라고요. 그럼에도 평소에 긴장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쌓아두었기에 모든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백규O / 연매 90점 > ★★★★★



수능 직후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원 특목, 세종과학고등학교 백규O입니다. 우선, **약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매뉴얼들을 알려주시고 자신이 없었던 국어에 자신감이 생기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국어학원에서 제일 처음에 봤던 서바모고에서 76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을 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이번 수능에서 90점을 받고 백분위98이라는 수치를 보고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ㅜㅜ 이번에 독서가 많이 어려웠다는데, **시작하기 전에 (가)(나)결합지문 매뉴얼과 독서 매뉴얼을 다시 한번 보고 시작해서 그런지 평소 자신없었던 결합지문도 관계를 잘 잡고 나왔고 독서 파트를 다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ㅜ 남은 주말 행복한 주말되세요 :)

성아O / 연매 95점 > ★★★★★



수능 직후

8월 중순부터 다원특목에서 황용일 선생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연매 36 39 틀렸어요..문법을 꼼꼼히 안 해서 억울하진 않지만 아쉽습니다. **9모랑 점수는 같지만 공통에서 체감이 확 달랐어요. 9모 문학은 찍은 느낌이 강했는데, 수능은 선지가 너무 당연하게 해결되어서 신기했습니다.** 준비기간이 짧았던 만큼 용기 교재가 제일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독서는 지문이 쉽지는 않았지만 선지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수시러지만 최저가 높아서 국어 1이 간절했는데 감사합니다.

박지O / 2등급 → 연매 96점(1등급) > ★★★★★



수능 직후

안녕하세요. 대구 다원 박지O입니다. **저 2학년 11모 2등급, 3학년 3모 70점대로 겨우 2등급 받고 국어는 역시 나의 과목이 아니야 하고 좌절하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처음 뵈고 '아 국어를 이렇게도 접근할수 있구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이후 열심히 달려 5모, 6평 모두 100점을 받고 9평 95점을 받았습니다.**

수능 직전까지 '용기'에 담겨있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읽으면서, 공부해왔던 내용을 점검**하면서 준비했고, 수능 국어 치기 전 시간에는 너무 긴장돼서, 용기 맨 앞에 있는 매뉴얼만 정독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귀에서 아른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ㅎㅎ** 수능 시험을 칠 때는, 긴장도는 다르지만, 선생님과 서바이벌에서 연습했던 대로만 하니깐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갈 때 막힘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2개를 틀려 96점이긴 하지만 3모 70점대였던 제가 이렇게까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건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준O / 언매 98점 > ★★★★★



수능 직후

대구 다원에서 수강했던 박준O입니다. **황용일 선생님 수강생이 적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죄송합니다ㅎ) 저만의 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잘 배웠습니다. 국어는 배울 게 있는 과목이 맞습니다.**

후배들에게!

올해 수능이 어려웠으므로 내년 콘텐츠가 어려울 거 같네요... 사설에 너무 목매지 말고 **'기출이 당연히 기본이 돼서 내 사고대로 풀면 평가원은 다 맞더라'**라는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사고법이 필요합니다. 국어는 본인에 대한 믿음이 시간도 안 주고 점수도 안 주는 키포인트입니다. 소싯것 하루하루 쌓아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홍석O / 70점대 → 언매 94점(1등급) > ★★★★★



수능 직후

1. 수업 방식

수업은 100분 수업으로 진행되고요, 개념이랑 응용을 그냥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몸에 배게 만드는 흐름이에요. **선생님이랑 사고 과정을 계속 비교해 보면서 “내가 어디서 잘못 생각했지?” 이런 걸 하나씩 교정해 가는 느낌이라, 혼자 공부할 때랑은 밀도가 진짜 달라요.**

2. 수업 내용

저는 재종이라 문학 수업만 들었는데요, 시·소설·수필·극을 다 **“주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작품 읽을 때 어떤 태도로 들어가야 하는지부터** 잡아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행동 강령처럼 알려주시고, 제가 풀다가 한 실수도 그냥 틀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틀린 이유 → 어떻게 고치고 기억해야 하는지”까지 피드백하면서 정리해줘서 많이 남아요.**

3. 자료

교재 양이 처음엔 “와 좀 많다...” 싶을 수 있는데, 막상 보면 개념책이 분량만 많은 게 아니라 **해설이랑 선생님 사고가 꼭 차 있어서 납득이 돼요.** 수업 끝나고 복습할 때나, 배운 내용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볼 때 딱 맞게 설계돼 있어서 “아 이래서 이만큼 줬구나” 싶어요.

4. 종합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감상력’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진짜 최적인 수업** 같아요. 감상력만으로는 안 뚫리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럴 때는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는 해결법을 같이 배우게 되고요. 무엇보다 **강사님이 수업 진행이 워낙 노련하셔서, 흐름이 매끄럽고 중간중간 재밌어서 듣다 보면 100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후배들에게!

저도 3, 4월 월례고사 70점대에서 이번 국어 점수를 94점까지 올렸습니다. 자랑할 점수는 아닌 것 같지만 스스로를 믿고 과감히 국어에 투자하시고, 황용일 선생님 수업을 믿고 따라오시면 선생님의 스킬이 **체화되는 순간 신세계를 경험할 것이라 자부합니다.**



수능 직후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대인재 w관 j반에서 1년 동안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정유O입니다. 제가 대면 질문으로 자주 찾아 뵙지는 않았지만 저는 선생님 수업이 재종에서 들은 수업 중에 가장 기대되는 수업이었고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업 때 가장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선생님 덕분에 국어가 재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수를 결심하고 시대 재종에 들어온 첫날이 아직도 눈 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아요. 독서실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며 응원해주고, 생활 담임 선생님들, 옆자리 학생들, 제 자리까지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나요. 그것만큼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선생님의 첫 수업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래도 작년 수능 문학은 다 맞았기 때문에 '문학 공부를 해야 되나?'라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첫 수업 때 보기만 주고 문제를 풀라 하시고, 주름잡힌 연륜으로 +-를 보여주신 그 수업은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초등학교때부터 대치동 여러 학원들을 다녔지만,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그 수업이 제가 **살면서 들은 수업 중에 가장 충격적인 수업이었어요. 문학은 그냥 어릴 때 책 많이 읽으면 잘하는거라 생각했고, 공부한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 생각했는데 이런 접근 방식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선생님의 수업에 바로 매료돼서 수업 후 복습은 수능 직전 수업까지 다 했고, 수업 책뿐만 아니라 주간지와 용의주도까지 다 소화하려 노력하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6평 때는 검토에 마킹까지 다 하고도 15분이 남았고, 집에 가보니 백점이었다고요. 그게 제가 사실을 포함한 인생 첫 국어 백점이었는데, 그 행복감은 이기기 쉽지 않을 거 같네요.

그러다가 9평 때는 문학 독서에선 하나밖에 안 틀렸는데 독서론 화작을 망치면서 2가 떠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또한 수능이 아니기에 털어버리고 다시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선생님과 종강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제가 재종 종강을 하면서 딱 두 번 울었는데, 그중 한 번이 선생님과 인사하기도 전에 선생님 편지를 읽으면서부터 눈물이 나와서 다음 교시까지 내내 흘쩍였어요...ㅠㅠ 정말 그만큼 선생님의 수업은 저에게는 너무 큰 도움이 된 수업이었습니다.

수능 전날에 선생님이 보내주신 문자가 생각나네요. 드라마의 주인공답게 하고 오라고, 각본은 저를 위해 쓰인 것이라고 해주셨죠. 저는 그 말에 가슴 깊이 감동을 받았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 말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네요. 그 문자를 보면서 메이저리그 무대의 오타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타니처럼, 본인을 위해 만들어진 무대를 즐기자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수능 전날에 벼랑 끝에서 재수를 했기 때문에 손발이 떨리고 진정이 안 되고 집중을 못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지난 시간을 떠올리니 자신감도 생기고, 이 안에서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 평온함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능 날이 왔고, 국어 시험을 봤습니다. 독서가 난이도가 높아서 많이 당황했는데, 하나하나씩 선생님과 배운 것을 토대로 풀었습니다. 특히 34번을 풀 때는 헛갈렸는데, 보기가 포괄적 선지가 구체적이면 의심!! 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며 풀 수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 선생님 덕분이예요!

그렇게 다 마무리하고 **작년 수능 국수영탐탐이 22262였는데 올해는 92점, 92점, 2등급, 50점, 47점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생님을 떠올리며 버틸 수 있었어요. 나무위키를 보니 많은 곳들을 다니시며 단과까지 하시는데, 선생님은 단 하루도 휴강 없이 저희 앞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선생님도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웃음을 잃지 않는다. 내가 징징대면 안되지.'라는 생각으로 웃으면서 1년을 버텼습니다. 민사고 전교 1등 친구가 졸업 연설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어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그런 어른이 되도록 자신을 가꿔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른의 모습 중 하나는, 선생님같이 학생과의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 책임감 있는, 그리고 힘든 상황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1년 동안 좋은 수업을 해주셔서, 어른이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지금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를 드리지만 꼭 한번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승O / 연매 98점 > ★★★★★



수능 직후

문학 수업에서 기출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전 현역이었던 2025 수능에서 98점을 받긴 했으나 문학에서 여전히 불안함을 느껴 재수 때 오히려 국어 공부량을 늘린 케이스입니다. 고3때까지는 한 번도 진정한 기출 분석을 해보지 않았고 반수 반에 들어온 이후 9월까지도 거의 사실만 풀었습니다.(9월까지 수업 열심히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근데 9모때 94점을 받고 문학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그제서야 용의주도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멘트들 하나하나를 다 읽고, 내가 했던 생각들을 용일쌤 사고와 비교하며 1. 내가 했던 사고의 근거 2. 내가 해야했었던 사고와 그 이유 3. 내가 2번 사고를 시험장에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기출을 2시간씩 공부했고 선생님 말씀대로 기출은 보고 또 봐도 하나씩 얻어갈 것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연매나 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정리해서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호O / 백분위 70 후반 → 연매 84점 > ★★★★★



수능 직후

안녕하세요 선생님! 1등급을 받고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ㅠㅠ 아마 한 문제 차이로 2등급일 것 같은데, **작년 수능과 6모 백분위 70후반, 9모 백분위 80초반에서 수능 90대의 백분위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선생님 수업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자신 있던 연매에서 시간이 평소보다 오래 소요되어 문학을 여유있게 들어가지 못했는데, **선생님께 배운 논리들을 적용하다보니 문학이 예상 외로 수월하게 풀려서 다행히 최소한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반수반 들어와서 5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국어를 정말 열심히 해왔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큰 발전을 했다는 것이 저에겐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안 될 것 같았던 국어도 바른 공부법을 통해서 실력이 늘 수 있다는 것도 느꼈고, 무엇보다 수능장에서 문제 하나하나 푸는 순간에 그걸 체감하면서 미련이 전혀 남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풀 수 있었어요.** 올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능 직후

목동 시대 W관에서 약 5개월 정도 선생님의 문학 수업을 들었는데, 용일쌤 수업이 제가 가장 좋아하고 기다리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국어는 어릴 때부터 잘해서 크게 공부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감'으로 푸는 것이었기에, 누군가에게 명료한 설명을 해주지는 못했고, 어려운 문제들은 '그냥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24학년도에 문학이 어려워지면서, 저의 가장 강점이던 국어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를 들어봤지만, 크게 와닿는 것이 없었고 그렇게 현역 때까지도 거의 스스로 수능 국어를 공부했습니다.

25수능 국어가 평이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지만, 100점이 목표였던 국어에서 문학 2개를 틀리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 후에 여러 사정으로 다시 시작한 반수에서는, 수학과 과탐을 하기도 벅차 '국어는 또 피지컬로 풀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래도 계속 잘했는데, 잘..보지 않을 까..?'하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대없이 들었던 첫 수업부터 제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셔서 놀라웠고, 혼자 복습을 하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려보니 이제껏 제가 수능 국어를 대했던 태도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독서는 그렇다 해도 수능 문학은 완전히 감상력 싸움이고, 문학이라는 예술분야를 시험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보기>를 통한 접근방식을 통해 수능 국어가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능 문학에 대한 본질적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시, 소설 문학의 기본적 이론에 대해 개념 수업까지 해주셔서 단순 수능을 넘어 작품 자체를 바라보는 태도도 기를 수 있었고, 내신때 배워 머리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떠다니던 것들이 명료해지며 문학 자체에 대한 지식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대부 수업!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선생님 수업을 성실히 따라가다 보니 어떤 문제를 만나던 '아 여기가 ox point네', '<보기>만 봐도 모순인디?', '아니 원오끼리가 안맞는데? 밑줄 확인할 필요도 없네ㅎ' 이런식으로 문학 문제들을 가볍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수필 수업할 때 해주신 '여러분들은 아르네가 아니고 영웅이다'라는 말과 그 외에도 **매 수업마다 해주시던 응원의 표현들이 수험생활 속에서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재종에서 수업 듣고 있는 제 자신이 루저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 '실패하면 어찌지'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는데, 시련을 통과 의례로 여기는 게 섭리다!!를 매번 외쳐주시면서 반수반 학생들이 다시 도전하는 게 더 멋있는 거라고 말씀해주실 때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 수능 문학, 그리고 연매까지도 책임져주신 용일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D

후배들에게!

국어는 솔직히 타고나는 게 좀 큰 과목인 것 같아 함부로 공부법 조언을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느꼈던 것들을 몇 개 말씀드리자면, **'국어는 기출만 봐도 충분하다!'는 말을 가장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시대에서 강제로 풀리는 서바와 상상을 제외하고는 사실문제를 거의 풀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국어는 글을 너무 많이 읽어도 감이 떨어지고, 안 좋은 지문을 읽어도 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기출을 위주로 적당히 감을 유지할 정도로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용일쌤 커리를 성실하게 잘 따라가면서 복습 밀리지 말고, 매주 보이스까지 잘 읽어가며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공부가 될 테니** 사실 콘텐츠에 굳이 의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연계공부는 사설의 힘을 좀 빌려도 좋지만, 사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E무기에 있는 설명들만 읽긴 했습니다..)

그리고 국어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잘 읽히지도 않는 지문을 여러 개 읽는 것보다는 한 지문을 3~4번까지도 읽고 분석하며 내가 놓친 부분들을 점검하고, 출제자가 어떤 힌트를 숨겨놓고 나를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서 문제를 풀게끔 설계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노베이스라 국어가 정말 약한 학생이라면, 바로 혼자 기출분석을 하기보다 선생님의 수업을 잘 따라가면서 일단은 방법을 익히고 스스로 체화하는 것에 집중한 후 하반기에 스스로 다시 분석해 보면 아마 많은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면서 실력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서0 / 연매 96점 > ★★★★★



수능 직후

고3 시절부터 들었던 황용일 선생님과 함께 재수생활을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1년 동안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문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접하고 또 깊이 익히며 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수능 국어의 본질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기출 분석 또한 선생님께서 권장하신 방법으로 다시 해보며 배운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국어라는 과목을 감이 아닌 정확한 사고와 근거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용일쌤의 사고를 담은 보이스를 읽어보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생겼고 정답 선지 선택에 있어 거쳐야 할 당연한 사고들이 점차 당연하게 느껴지면서 실력 상승이 뒤따랐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항상 열정으로 가르쳐주시는 용일쌤 덕분에 활력 잃지 않고 1년 간의 재수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에게!

상반기에는 실력을 위한 공부를, 하반기에는 자신감을 갖춘 공부를 해야 합니다. 때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용일쌤과 함께 차근차근 개념부터 평가원의 사고 방식까지 체화시킨다면 수능 국어만큼은 불안이 아닌 안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전달해주시는 선생님만의 사고를 많이 접하고 또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소O / 연매 87점 > ★★★★★



수능 직후

저는 선생님과 재중 초반의 일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사실 첫 수업에서 '엥 이걸 시험장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의 풀이가 개연성이 떨어지고 사후적인 면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죄송합니다..) 지금껏 해오던 공부와 결이 많이 달라 드럽도 고민했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자!'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멍하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수업에 참여하던 저조차 점차 집중하게 되고, 어느 순간 **선생님이 사후적인 게 아니라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시험장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고를 할 수 있게 가르쳐주셨고, 탄탄한 배경지식으로 지문과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셨어요.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수업이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밟아가는 수업이라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후배들에게!

제가 전체적인 국어 조언을 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후회되는 점을 말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제 수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소 아쉬운 성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1. 지문을 못 읽게 되는 상황 연습하기

2. 손가락 걸지 않고 푸는 연습하기

저는 평소에 손가락을 걸며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수능날... 이게 맞을까? 틀린 거 아냐?? 이런 생각이 들며 아주 많은 문제에 시간을 뺏겼고, 그 결과 두 지문이 남은 상태에서 18분이 남으며 (가나, 인문)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고, 5문제를 찍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위에 것을 연습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은 꼭꼭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수험생활 파이팅하세요!

Ps. 찍은 건 모두 틀렸지만 푼 건 다 맞아 1등급은 나왔습니다. 진짜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수능 날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창O / 연매 91점 > ★★★★★



수능 직후

'국어는 그냥 지문 읽고 느낌 오는 대로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나서 글도 제대로 읽는 방법이 있고, 문제 접근 방법도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 여러 가지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수 반으로 들어가 초반에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꾸준히 수업을 듣고 사고를 복습해 보니 어느새 작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올랐습니다.

후배들에게!

자신의 방법과 선생님의 풀이가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도 **꾸준히 선생님의 사고를 접해보고, 익히려고 노력해 본다면 또 하나의 든든한 무기가 생기는 셈이니, 의심이 들더라도 적어도 3주 정도는 선생님의 사고를 똑같이 따라 한다는 생각으로 연습해 보세요.** 자신이 알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황용일 선생님 단과 수업 하나만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낼 수 있었던 것이 저
도 정말 놀랍습니다. 황용일 선생님 자료는, 충분한 학습량이 뒷받침된다면 국어를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국어 유니버스입니다. 'Drag;ON'으로 개념을, '용의주도'로 평가원 기출을, 파일널 시즌 'E무기'
'로 연계 공부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교재들의 특징점을 하나씩 뜯어 설명하자면, 'Drag;ON' 교재
는 문제가 개념별로 유형화되어 정리되어 있어 개념을 탄탄히 잡기 좋다는 점입니다. 또한 'Drag;ON'
과 '용의주도' 교재의 경우, **'미르원스Voice'라는 선생님이 제작하신 별도의 해설지가 있는데, 이 책
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문항 모든 선지의 구어체 해설을 담고 있으며,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설명
하시는 내용과 완벽히 일맥상통합니다.** '원/오/보기 접근의 순서', '보기 포괄적 선지 구체적인 의심', '감히 인간이', '독서는 첫 문단의 용어 정의를 여러 번 봐도 좋다'와 같은 꿀팁들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세한 해설이 제공됩니다. EBS 연계 대비 교재인 'E무기' 역
시, 작품 해석뿐만 아니라 과거에 학평과 모평 등에서 출제되었던 문항들이 연계 N제로 함께 수록되
어 있어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보다 연계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6수능에서 고전소설
로 아무도 예측 못 한 '수궁가'가 나왔죠? 'E무기 고전소설' 교재에 수궁가 문제가 세 세트나 수록되
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풀었고, 범 내려온다에서 노래가 들려서 집중이 깨질 거들도 없이 빠르게
풀고 넘어갔습니다. 이 교재들 외에도, 문학 비연계 N제, 서바이벌 Voice, 미르원스손풀이, 미르원스
Pick과 같은 추가 교재들이 수시로 제공되니 **국어는 황용일 선생님 단과 하나만 들어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방대한 양의 교재를 받으면서, 혹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시는 분인지 의심이 들 수 있습니
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순서에 따라 교재를 하나씩 끝내다 보면, 점점 신뢰가 생
기고 어느새 '황용일 유니버스'에 탐승하고 계실 겁니다. 자료가 많지만, 그 **모든 자료가 대충 만들어
지지 않았고, 한 페이지도 빠짐없이 선생님의 손길이 들어간 정성의 자료들이예요.** 국어 공부는 그냥
경주마처럼 황용일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세요. (아, 시험 볼 때는 경주마처럼 보면 안 됩니다. 선생님
대사예요.)

국어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로 좌절하거나 선불리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황용
일 선생님께서 주시는 자료를 다 풀 수 있을 만큼의 공부량과, 선생님의 팁들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자율성만 가지고 있다면 국어 걱정은 이만 덜어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후회없이
공부해서 좋은 성과 만들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0분 운영 방법에 있어서 소소한 팁 하나만 드리고 글을 줄이겠습니다. 시험지에 '시간
표지'를 남겨보세요. 국어 80분을 각자의 템포에 맞게 (저는 언매 16분, 독서 30분, 문학 30분) 쪼개는
작업은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만 들어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각 지문을 들어갈 때,
지문 위쪽 여백에 진입 시간(분)을 기록하세요. 그러면 보기 문제에서 시간이 길어질 때 미련없이 다음
문제로 떠나기가 용이합니다. 시각적으로 시간이 길어짐을 인지하는 것이 실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직후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문학이 무엇인지 알게 된 목동 재중 학생입니다. 저는 쌤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수능 문학은 주관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선지가 왜 맞는지 납득을 못하고 결국엔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보니까 국어 점수는 들쭉날쭉했고 원래 그게 과목특성이라고 방치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쌤 수업을 듣고 모든 선지엔 객관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지문에서 객관적 정보를 잡을 수 있게 되었고, 선지에 무게감을 두고 빨리 풀 수 있는 무기 등을 체화하고 나니 수능 문학이 더이상 두렵지 않더라고요! 올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용일쌤이 주시는 여러 공부방법 조언들 중에 오답노트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오답노트 덕분에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 초반이던 서바 점수가 안정적으로 80점대 후반, 90초반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쌤이 알려주신 오답노트는 다른 오답노트들과 달랐는데, 틀린 문제를 적고 이유를 적는 오답노트가 아니라, 각 문제마다 어떻게 사고했어야하는지 쌤의 말을 노트에 적는 식이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쌤의 tip이 같은 말로 여러 번 노트에 적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복습하면 더이상 그 문제 유형은 안 틀리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다들 만만치 않았다고 했던 26수능 국어를 5분 남겨놓고 여유투게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후배들에게!

저는 용일쌤이 수업시간이나 자료에 써주시는 멘트를 자주 보라는 조언을 하고 싶어요. 체화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주시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보다보니까 문학을 풀 때 저절로 쌤이 옆에서 '이건 원에 맞는 오가 아니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수업 때 주시는 tip들만 잘 챙겨도 문학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수능때 문학 푸는 도중에 샤프가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처음 겪는 일이 일어나니까 멘탈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치만 저는 '<보기>만큼 <보기>대로 사고하기!' '선지에 무게감!' 등 다른 수험생들과 다른 무기를 여럿 갖고 있고, 누구보다 빨리 문학을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당황하지 않고 문학 20분 컷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능 직후

용일쌤 수업을 재종에서만 들어서 사실 독서에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문학은 너무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수능 문학과 다 맞혔습니다 :) "<보기>보다 구체화됐으면 의심!"은 너무 치트키였던 것 같아요 ㅋㅋㅋ 260621도 그에 해당하는 문항이었고, 선지가 왼쪽 오른쪽으로 나뉜다는 것도 재수때에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취향차이로 갈리겠지만 저는 배운 걸 바탕으로 문학 보기 문제에서는 항상 선지를 윈) 오)로 갈랐고, 윈)으로 사고하기보단 큰 틀, 즉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오)에서 승부를 봤습니다.

또한 독서도 수업을 하신 건 아니지만 가끔씩 말해주셨던 독서 지문에서의 예외 상황!

저는 이걸 "앤지 <보기>" 라는 워딩으로 부릅니다. 지금 생각나는 문항은 230616, 260608 정도인데 이번 수능 가나 지문에서도 지문에서 나온 예외를 모두 다 꺾쇠로 표기하고 보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어요.

서바 때도 항상 voice 만들어서 책자로 주시고, 단과가 잘되시는데도 재종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후배들에게!

국어는 본인만의 행동강령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물론 과외를 하려고 적기 시작한 것이지만 이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가르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용일쌤이 가르치시는 "<보기>보다 구체화되었으면 의심!", "해석의 여지가 두 개 이상인데, 단정하고 있는 선지 의심!" 등 윈)이 아니라 오)의 큰 틀에서 사고할 수 있는 tool들을 최대한 많이 익혀두고 본인만의 노트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걸 쌤이 소개하지 않은 기출문항에도 스스로 적용해보는 겁니다. 스스로 적용하면서 그것들이 익숙해지는 순간, 그때 그 학생은 어느 정도 날아오른 겁니다.

1년 간의 깊고 긴 공부는 너무 힘든 걸 잘 압니다. 다만, 역시나 인생의 흐름은 진인사대천명이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겸허하게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후배님들 파이팅!



수능 직후

사실 재중에 오기 전에 가장 친한 친구가 선생님 수업을 정말 좋다고 극찬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국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라서 선생님의 수업이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재중에 마침 황용일 선생님이 들어오신다고 되어있길래 기대에 찬 마음으로 첫 수업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전 현역 때 꽤 많은 국어 강사의 수업을 들었는데 **황용일 선생님의 수업은 딴 수업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획기적인 수업이었습니다.** 재중이어서 문학 수업을 들었기에 문학 위주로 말한다면, 저는 보기를 읽고 지문을 읽긴 했지만 단 한번도 그 이상으로 나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보기를 근거로 선지를 의심하거나 선택을 하는 건 저에게는 생소하지만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선지 간 관계를 활용한다든지, 포괄 구체를 이용한다든지, or를 이용해 차이점임을 인식한다든지** 보기 문제에 관한 정말 많은 무기들을 가르쳐 주셔서 더 이상 보기 문제를 풀 때 쫓면서 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일치 문제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적절한 것 고르기는 찾는 자세**입니다. 원래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에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선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때로는 오답도 내주었는데, 선생님처럼 찾으려는 자세로 임하니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정답률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를 바라볼 때 ox 포인트를 구분해서 원)이 맞으면 오)는 당연하지! 로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문학 개념 설명을 하실 때 알려주신 **사태부의 출처관이나 관념적 공간, 일상적 공간** 덕분에 9모 화전가 보기 문제를 바로 맞힐 수 있었고, 항상 말씀하신 **공 같은 경험**도 고전소설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9모 때 선생님께 92점을 받아서 감사하다고 카톡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능 때도 제가 잠을 못 자고 긴장을 많이 했지만 선생님의 수업을 모두 체화하니깐 그것들을 이겨내고 일치 2점만 틀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바이벌 해설지를 별도로 주신 점,** 항상 서바이벌 문항들을 정성스레 해설해 주신 점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연매도 같이** 해설해 주실 때 많은 팁들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이무기도 너무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막판에 연계 공부를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주신 **언어와 매체 영상**도 진짜 진짜 좋았어요. 국어 강사는 물론이고 모든 강사를 통틀어서 제 최고의 선생님이예요!(너무 좋아서 올해 08인 제 동생도 선생님 수업을 수강할 예정입니다)

후배들에게!

저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국어라는 과목은 모두에게 불안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제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는 꾸준히 한다면 노력한 만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성적이 안 나와서 막막해도, 해도 오르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나의 노력이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기출이 정말정말x3 중요합니다.** 08분들은 기출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높는데 기출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황용일 선생님 수업이 처음엔 호불호가 갈린다고 들었는데, 딱 4주만 들으시면 깨달음이 오실 거예요. 한 달만 지나면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술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제2의 국어 자아가 생기는 느낌입니다.** 꼭 경험해보셨으면.....마지막으로 **사실 실모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못보든 잘보든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시간 관리나 운영 면에서 열심히 피드백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말씀해주시겠지만 **나만의 오답노트를 꼭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재수를 했고 2년간 수능 국어를 공부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공부한 만큼 결과는 좋게 나왔어요. 저도 했으니깐 후배분들도 당연히 가능합니다!!(용일쌤과 함께라면) 응원하고 있을게요☺

최예O / 언매 86점 > ★★★★★



수능 직후

바르게 걷는 법부터 전력으로 질주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함께해 주신 용일 쌤!! 첫 수업 시간, 선생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성공한 거라는 8기 선배님의 후기가 떠오르네요 ㅎㅎ 저도 그 얘기 그대로 10기 부영이들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르네가 되지 않고 황용일 주니어가 되기로 시대 부영이에 입몽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현역 수능 때 첫 국어 2등급을 맞고 최저를 못 맞춰서 재수를 결심했었습니다. 등급은 안정적으로 나왔었지만 실력은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그게 가장 떨리고 중요한 수능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나갈지 하나도 모르겠고 막막하던 찰나에 용일 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걸음마부터 천천히 다시 배우며 제 습관과 독해 방식을 점검할 수 있었고 첫 수업 시간에 보고 무척 놀랐던 원이면 오인가? 보기가 선지에 그대로 내려 앉았는가? 선비마인드 출처관, 어디 감히 인간이?? 애가 할 법한 이야기가 아닌데.... 등 **선생님께만 배울 수 있는 든든한 무기들도 선생님을 따라가며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능 국어에서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이 무기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게 다 뭘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러분도 후기를 작성하실 때쯤! 그때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즐겁게 추억하실 겁니다 ㅎㅎ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선생님께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카톡 채널부터 미르원스 보이스, 월레 해설, 서바 해설, 용기 등 용의 숨결이 어린 소중한 교재들과 함께라면 **늘 선생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든든히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주시니, 여러분은 그저 선생님만을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수능이라는 여정의 끝에서 반드시 웃고 있을 여러분! 미리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

그리고 존경하는 황용일 선생님!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선생님을 뵈고 선생님께 배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학생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강의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게 잊히지 않아요.** 저도 선생님처럼 꿈을 이루어나가며 제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감사했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당~

손향O / 언매 94점 > ★★★★★



수능 직후

고3 생활을 시작하며 **국어가 가장 걱정이 되던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다 **황용일 선생님 수업을 들으며, 문학에서는 보기와 선지를 읽는 힘, 비문학에서는 글을 읽는 방법 등을 배우며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점수도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능 1교시인 만큼, 국어라는 과목에 대한 자신감과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모두 책임져 주신 황용일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후배들에게!

미르원스voice를 읽으며 처음에는 막연하고 절대 할 수 없는 사고 같았습니다. **꾸준히 공부하면 자신이 문제를 풀 때 했던 사고를 보이스에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며 (정말 선생님 목소리가 과제할 때 들린 적도 있습니다..)** 원하는 목표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

김가O / 4등급 → 연매 85점(1등급) > ★★★★★



수능 직후

선생님! 기숙 D2반 2월부터 항상 앞자리에서 들었던 김가O입니다! 25수능을 4등급이라는 성적을 받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숙에서 선생님 수업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아 국어 공부는 저렇게 해야 됐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국어만큼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비록 완전 최고의 점수를 받은 건 아니지만 현재 기준으로 1컷이라는 점수가 나와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점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국어 1등급 나오면 조교 지원 해볼게요!! 감사했습니다.

후배들에게!

국어 4등급에서 1컷 정도로 실력이 많이 올랐는데 그건 다 선생님이 항상 해주신 잔소리와 국어 공부에 대한 방법 덕분인 것 같습니다. 후배님들도 자신과 선생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응원합니다!

하채O / 화작 98점 > ★★★★★



수능 직후

선생님 덕분에 문학 다 맞았어요!! 사실 선생님 수업 듣기 전까지 문학 보기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던 학생이었는데 일 년 동안 수업 들으면서 문학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정말 걸음마부터 배운 거 같아요ㅎㅎ 재종에서 처음 수업 듣던 날엔 제가 선생님처럼 기출분석을 해 본 적이 없다보니까 솔직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막 이해가 되진 않았었어요ㅎㅎ 그래도 그냥 수업 꾸준히 열심히 들었더니 어느 순간 아! 하고 깨닫는 순간이 왔고 그 이후로 정말 문학을 거의 안 틀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께 배운 선지판단 방식으로 지우다 보면 확실히 정도싸움이 줄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자칫 선지판단이 애매하다고 느낄 수 있는 문학영역에서 누구보다 명확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후배들에게!

국어 과목은 다른 과목보다 배우는 과정에서 명확함을 가지기가 힘든 거 같아요. 일단 공부를 많이 하긴 하는데 시험점수는 자꾸 왔다갔다하고 시간은 계속 부족한 것만 같고, 내가 지금 얼마큼 는 건지 확인하기가 다른 과목보다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서 저는 황용일 선생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는 감으로 처리했던 문제들에 이젠 명확한 근거를 댈 수 있게 됐을 때 '아 이제 진짜 문학과 논리적으로 풀 수 있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국어 공부가 더더 재미있어졌어요. 전 특히 재종학생들이 선생님 수업 드랍하지 말고 제발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초반에 선생님 언어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되게 아리까리했는데 어느 순간 딱 그게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는 진짜 새로운 길이 트인 느낌이었어요. 전 선생님 말 제대로 이해된다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 선생님 voice가지고 기출문학 정리 다시 했는데 이게 진짜 성적향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된 거 같아요. 수험기간에 아예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명확한 공부를 해나가면서 점차 불안감을 줄여나갈 수는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 1년 동안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실 여러분을 응원해요!!!

양진O / 2등급 → 연매 87점(1등급) > ★★★★★



수능 직후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전시대인재에서 3월부터 수강했던 양진O입니다. 처음 수업 들었을 때 간단하게 면담한 것 이외에는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거나 찾아간 적이 없어서 아마 모르실 것 같기는 한데 수업하실 때 선생님 눈을 많이 쳐다보려고 노력했는데 아마 얼굴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네요..ㅎㅎ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 수능에서 국어 1등급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ㅠ

사실 3월에 처음 수강하고 너무 낮은 수업 방식에 저의 풀이법을 많이 바꾸느라 아직 체화가 많이 안 됐는지 6평에서는 백분위 92에 2등급을 받았었습니다. 드래곤 복습이랑 미르원 과제장만 하다가 아마 이때부터 2등급을 받고 용의주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 결과 9월에 백분위 98로 1등급을 받게 되었고,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첫 1등급이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국어가 너무 어려웠는데 87점이라는,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1등급 받을 수 있었어요

재수를 시작하고 1월, 2월 공부를 하면서 국어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한 것 같아 고민이 많을 때 듣게 된 선생님 수업이었는데, 그냥 첫 수업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듣기로 결심했고 1년간 제 국어를 다 책임지신 선생님이셨어요. 시험 끝날 때마다 선생님이 피피티로 후기 문자들 보여주시는 거 보면서 저도 꼭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낼 수 있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길어진 것 같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선생님께서도 1년간 달려오시느라 고생하신 만큼 잘 쉬시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김윤O / 연매 92점 > ★★★★★



수능 직후

안녕하세요, 시대인재 목동W관 S반에서 수강했던 김윤O입니다. 반 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가면서 감으로만 풀던 문학을 정확한 근거를 찾아내어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이라면 오인가?'와 '보기 포괄적, 선지 구체적', '역설 is 주제' 등 선생님의 논리를 토대로 공부하며 문학이라는 과목에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고득점은 아니지만, 제가 치렀던 9번의 평가원 시험 중 처음으로 문학에서 오답이 나오지 않았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수능에선 수필 파트에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ㅎㅎㅎ)

후배들에게!

국어 공부를 할 때 너무 한 가지 풀이 방향에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파트가 약하다 싶을 땐 그 파트를 가르치는 여러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스킬이나 논리를 배워가며 차곡차곡 실력을 키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2년 동안 시대 재정을 다니면서 여러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봤고, 본인과 잘 맞지 않더라도 배워갈 게 있다면 모두 받아들이고 언젠가 써먹을 수 있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수업을 듣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매 선택자분들은 ebs 연매 문장들을 분석하고 헛갈리는 개념이나 기출 사례들을 모두 정리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ebs를 절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안다고 고개 끄덕이고 넘어가지 말고 노트에 정리하고, 말로 이야기해 보면서 '내가 다 알고 있는가?' 수시로 확인해 보길 바라요! 26수능 38번도 '온갖'이라는 관형사를 외우고 있지 않았으면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연매는 암기가 답이고 사례를 많이 많이 보고 공부하면 좋겠어요.

장유O / 4등급 → 언매 90점(1등급) > ★★★★★



수능 직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매주 대구에서 금요일 저녁 수업에서 맨앞자리 앉던 장유O 학생입니다. 우선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따라 선생님을 설명회에서 보고 거기서부터 시즌1부터 파이널까지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의 수업 덕에 국어에 대한 저의 생각과 관점 자체가 올해 정말 많이 바뀌어서 작수 때 국어 4였던 제가 6모부터 처음으로 2를 받더니 올해 수능 때 90점이라는 믿기지 않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수능 국어를 칠 땐 정말 너무 힘들어서 불안했지만 **그냥 배운 대로만 하자는 식으로 계속해서 쳤더니 무의식적으로 선생님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수능 시험장에서 튀어나와 이렇게 수능에서 커리어하이를 찍게 되었습니다.**

가장 불안했던 국어가 지금은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과목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지만 선생님의 이끌어주심 덕분에 이렇게 성적이 수직 상승했네요. 또 그리고 조교분들도 너무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고 도와주신 덕분에 국어 공부에 의욕이 많이 더해졌어요.

저한테 이번 **삼수 생활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 선생님 설명회 듣고 바로 수업에 들어와 선생님을 만나본 거 같고요.** 선생님은 학원에서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한테 학교 선생님보다 더 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늘 언제나 선생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O > ★★★★★



수능 직후

선생님, 대전 시대인재 김지O입니다! 사실 수능 잘 보고 바로 자신 있게 연락드리고 싶었는데...너무 긴장해서인지 수능을 잘보지 못해서요ㅠㅜ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지금이라도 감사 인사드려야겠다 싶어서 연락 남겨봅니다! **우선 선생님의 국어 수업은 정말 단연코 최고였어요! 덕분에 수능 국어란 어떤 것인지 잘 느낄 수 있었고, 제 속에 국어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요..ㅎㅎ 저희 부모님도 저보고 "년 1년 내내 국어공부만 하니?" 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국어 뿐만이 아니라 1년의 수험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도 늘 알려주시고, 진짜 담임 선생님처럼 챙겨주셔서 감사드려요! 저 현역이었는데, 진짜 학교 담임선생님보다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며 말씀해주신 아르네와 영웅의 이야기가 제 심금을 울렸고요..**

덕분에 누가 뭐라든 나의 길을 멋지게 만들어 가야겠다는 마음입니다. 너무나도 아쉽게 수능 점수가 79점이라.. 결국은 정시가 아니라 수시로 대학을 가게 되었지만요. 저 저번 10월 학평에 저희 학교 유일한 국어 만점자였어요! 다 선생님 덕분에인 거 아시죠??ㅎㅎㅎ 수능도 똑같이 만점받고 미르원스 국어와 더 함께하고 싶었는데... 너무 긴장했나 봅니다...ㅎ 암튼 그동안 정말정말 감사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황용일 선생님의 26학년도 국어 단과 수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한 학생으로서, 선생님의 수능 국어 수업이 단연 최고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ㅎㅎ **제가 현역이었는데, 작년까지는 모의고사 국어를 공부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친구의 권유로 듣게 된 선생님의 첫 수업에서 큰 충격을 받았죠.. '아 국어에 이런 원리가 있구나. 선지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등등이요..ㅎㅎ 그래서 덕분에 3학년 첫 학력평가인 3월 학평에서부터 높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장현O / 2등급 → 연매 91점(1등급) > ★★★★★



수능 직후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년 N관 S반, 올해 N관 반수 S1반에서 선생님 수업 들은 장현O입니다. 매년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백분위 98-99정도 나오다가 **수능만 보면 백분위가 90-91로 나와서** 항상 입시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선생님께서 제시해주신 **다양한 사고방식들을 지문이 잘 읽히지 않았음에도 잘 활용하게 되어 국어 원점수 91점으로 1등급 얻어냈습니다.** 선생님께는 제가 지나쳐간 수많은 수험생들 중 한 명일지는 몰라도, 저에게는 선생님이 제 미래 직업을 바꿔주신 분입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기출문제집과 기출 해설지로 마지막까지 공부한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선생님 총정리 책에 적힌 문학은~~ 독서는~~ 보다가 들어갔습니다. **수업 때 해주신 모든 조언들을 어떻게든 활용해 보려고 하니까 다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변예O / 60점대 → 연매 84점 > ★★★★★



수능 직후

용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시대 대치 재종반(반수)에서 반 년 동안 선생님과 함께 문학을 공부했던 학생입니다. 저는 조금 특이 케이스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약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서 시대인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호기롭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는데 약 9년..? 정도만에 다시 공부를 하려니 쉽지 않더라고요.. **3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6월 모의고사에서 60점대라는 충격적인 점수를 받고,** 독학으로는 올해 끝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대인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과목이 국어였고, 6월 모의고사 때 틀린 문제를 보면 문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작품을 읽고 대략 이해는 하는데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해주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이번 수능에서 연매에 말려서 독서를 거의 못 읽긴 했지만 문학을 다 맞아서 원하던 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 점수가 시대인재의 공부 매우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낮은 점수이겠지만, 최저 맞추는 것을 목표로 했던 저에게는 정말 너무 좋은 점수이고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학생들이 성적 잘 받을 수 있게 좋은 강의와 콘텐츠 제공해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지O / 3등급 → 연매 87점(1등급) > ★★★★★



수능 직후

안녕하십니까. 목동 시대인재N D반에서 황용일 선생님 수강했던 김지O입니다.

황용일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첫 수업입니다. 저는 현역 때, 시대인재 단과는 들어보지 않아 시대인재 선생님들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에서 “황용일은 시대국어 탐티어다.”라는 정보만 듣고 거의 아무것도 모른 채 첫 수업을 들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지문 없이 보기와 선지로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뭔가 그럴듯하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된다고?’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방법을 일단 적용해 보라고 권해주셔서 바로 부엉이 라이브리리로 올라가 용일쌤의 풀이를 적용했더니 문제가 잘 풀렸고 시간 단축도 많이 됐습니다.

여름방학 이후에는 서바 해설을 해주시는데 이때도 ‘A는 아니고는 예외 취급이다. 인물과 어울리는가/어울리지 않는가, 감히 인간이 자연을?’ 등 정말 많은 팁을 배웠습니다. 매주 서바 응시하는 것에 대해 세밀한 분석과 피드백으로 이 시기에 운영 능력이 많이 올랐습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수업 중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나 사설 중 과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여쭙보면 매우 빠르게 선생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서 공부하는 데도 수월했습니다.

저는 **25학년도 6/9/수능은 2/3/3등급이었습니다. 26학년도는 1/2/1 등급입니다.** 100% 황용일 선생님의 수업을 수강하여 성적이 올랐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황용일 선생님의 콘텐츠와 수업이 성적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었던 재수 생활에 **공부 외의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재수 초반과 망한 9모 이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르네, 마태복음 7장 8절, ‘어느 순간, 같이 싸우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둘이 싸우면 질 수가 없겠조~^^’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연히 연이 닿았지만 1년 동안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배들에게!

대격변 전 마지막 수능, 작수 불수능, 등 여러 악재로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허나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쌓아온 시간들, 푼 콘텐츠, 수험 생활을 함께 한 사람들을 믿으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꼭 27학년도 수능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재O / 연매 80점 > ★★★★★



수능 직후

저는 올해 세 번째 수능이었습니다. **24수능 현역 때 국어가 68점이었습니다..ㅋㅋ** 하지만 재수 때 시대재증에서 황용일 선생님 문학 수업을 들으며 처음으로 **“국어는 감이 아니라 논리다”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25수능 때 89점까지 점수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삼수 다시 선생님 단과를 수강했고, 이번에는 특히 **독서에서 단순한 ‘독해법’이 아니라 지문을 1문단 화제를 기준으로 이후 문단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식을 체득했고 2026 수능 독서를 버티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인데, 교재마다 적어주시는 미르원스팁 덕분에 그 성향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지문을 끝까지 파고들 수 있는 강점이 되었습니다. 삼수 때 다시 선생님 단과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6수능에서는 80점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지만, 그와 별개로 **시험장에서 순간적으로 당황해도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담담하게 풀 수 있었던 건 독서를 구조로 바라보는 습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1년 간 공부 흐름을 돌이켜보면 상반기에는 '용의주도'로 평가원 감각을 만들고, 중반에는 'DragOn'으로 난이도 높은 지문과 영역별 대응 방식을 체화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서바로 실전 루틴을 다지면서, 'e무기'로 ebs 연계공부를 했으며 마지막에는 다시 '용의주도'로 독서 구조를 정리하는 흐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국어는 막막함이 시작되면 무너지는 과목인데, **선생님 수업을 들으며 그 막막함 자체가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읽기가 단순해지고, 지문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눈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간중간 상담해주실 때마다 다시 멘탈이 다잡혀 제 기나긴 수험생활을 견딜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에게!

방법은 선생님께서 앞으로 1년간 귀에 피가 나도록 설명해주실 테니, 저는 수능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삼수를 했습니다. 현역과 재수 때 수능이 끝나고 1년을 돌이켜보면 "내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남았고, 그 후회를 견디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루하루를 밀도 있게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게 결국 끝까지 버티게 해준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수능 준비 과정은 결국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서 갈립니다.** 여러분도 매일을 충실히 쌓아가며 끝까지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화이팅!!

최정O / 4등급 → 연매 백분위 97(1등급) > ★★★★★



수능 직후

작수 4등급, 6평 4등급이었습니다. 국어를 너무 못해서 항상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반수반에 들어와서 황용일 선생님의 수업을 듣게 되었고, 9평 때 2등급이 나오며 생긴 자신감과 믿음으로 수능에서 1등급을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시험장에서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신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수능장에서 진짜 들렸습니다.**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나눠주신 선물인 용기를 3회독 하였는데, 이게 특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국어는 재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능을 통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어 영역에서 평생 1등급 한 번 받아보지 못했던 제가 수능에서 1등급을 받게 된 것은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복습한 '노력'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박상O / 연매 85점 > ★★★★★



수능 직후

안녕하세요. 선생님, 대치 시대인재 j반에서 수업 듣고 종종 선생님과 마주친 학생입니다. 인사가 하고 싶었는데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못했었습니다ㅠ

현역 시절부터 '국어는 항상 그날 컨디션이다, 다 운빨 게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며 싫어하던 과목이라 결국 수능 날 3등급 끝자락을 받고 울며 재수를 시작했다가, **올해 선생님을 만나고 '수능 문학이란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된 학생입니다.** 오)먼저 보라, 정서로 먼저 싸워보라, 선지를 읽는 방법, 글을 읽는 방법, 큰그림 안에서 싸우기 등등 '정말 과연 이게 될까...?'하며 2월부터 듣던 수업이 **어느새 체화가 되고 수업 중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부 수능 날 제 머리 속에서 울리며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숲을 보게 하고, 질문(원)보단 답변 정서(오)에 신경쓰게 만들더라고요. 후반부에 말하신 실모를 사용하는 방법, 연계를 적절히 사용하는 마인드 같은 것들도 많이 도움됐어요.

그리고 수업 중 시에 나온 아르네와 영웅이야기를 제가 풀릴 때쯤 지쳐갈 때쯤마다 해주셔서 정말 다시 부여잡고 힘내서 나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습하면서도 힘들 때마다 몇 번이고 그 말을 떠올리며 다시 공부해 나갔습니다.

글을 잘 못 적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적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수강후기 그런 거 절대 안 하는데,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라 꼭 잘 보고 수강후기 적고 싶었어요ㅎㅎ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O / 연매 88점 > ★★★★★



수능 직후

W관에서 쌤 수업을 들었던 j반 재종부영입니다. 작년 고3 겨울 때 처음으로 수능 국어란 과목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현역 내내 국어에 대한 방향을 많이 했던 거 같습니다. 독해력, 문학에 대한 이해부터가 부족했던 저는 독서도, 문학도 그저 줄줄 읽기만 바빴습니다. 허나, 재종에 오면서 쌤 수업을 듣게 되면서 점점 국어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쌤과의 첫 만남에선 죄송스럽게도 쌤에 대한 의구심이 컸습니다. 제가 그동안 들어왔던 다른 쌤들의 수업과는 무언가 괴리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점점 쌤이 알려주신 수업내용들이 저에게 진정으로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알려주신 '보기가 포괄적인데 선지가 구체적이면 의심하라'라는 내용이 저에겐 크나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전 쌤이 수업 때 하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심 먹고 잠이 쏟아지는 3교시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참아가며 수업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은 제 자신에겐 매우 이례적이었던 일이었습니다. **제 국어에서의 목표는 쌤이 하시는 사고를 현장에서도 제가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감히 초월적 존재인 용일쌤을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황용일 주니어가 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물론 엄청나게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문학에선 쌤이 알려주신 수업 내용들을 떠올리며 풀었고 덕분에 문항은 다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 독서수업을 담당해주신 쌤에겐 죄송스럽지만 독서도 용일쌤의 도움을 받았으면하는 아쉬움이 살짝은 있습니다. 이번 수능이 끝나면 제 목표가 쌤 조교가 되는 거였는데 아쉽게도 제 점수가 충족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ㅠ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달하지 못할 거 같아 이렇게 후기로라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제 재수생활에 큰 도움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배들에게!

용일쌤의 수업내용을 체화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수업을 듣고 기출로 체화하고 그리고 또한 실모를 풀고 나서 자신이 어려웠던 문제에서 왜 어려워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한 선지를 택했다면 그 택한 이유를 채점 전에 볼펜으로 적어놓고 채점하는 게 큰 도움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실모는 그저 내가 잘 체화했는지 점검하는 용도이며, 기출이야말로 실력을 올리는 공부**라는 쌤의 말씀이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란걸 깨달았습니다.

박수O / 연매 95점 > ★★★★★



수능 직후

처음 반수반 라인업에서 황용일 선생님 성함을 봤을 때부터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문학 강의로 유명하신 분이라 들었고, 작년 수능에서 문학이 어렵지 않았음에도 예상보다 많이 흔들렸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9기 당시 삼반수였어서 재중 수업 대부분을 듣지 않았지만, 선생님 수업만큼은 100분 내내 흐트러지지 않고 몰입하여 들었습니다.

특히 소설을 풀 때 줄거리 이해에 앞서 문제로 넘어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수업을 통해 사고 과정을 교정하고자 노력했고, 줄거리 파악과 선지 판별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9월부터 무휴학 반수를 하여 아쉽게도 대면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었지만, 선생님의 사고 흐름을 잊지 않기 위해 받은 교재로 기출을 꾸준히 학습했습니다. 용의주도 기출문제집을 매일 두세 지문씩 풀고, 해설을 꼼꼼히 읽으며 기출은 오직 황용일 선생님의 자료로만 공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두 번의 수능에서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백분위 99 이상을 처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점수 상승이 아니라, '읽는 방식'이 바뀌고 그 과정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에게!

개정 전 마지막 수능입니다! 저도 현역 시절과 재수 시절 1분1초라도 허비하는 느낌이 싫어 양치하며 단어 외우고, 재수학원에서 밥 먹으며 EBS를 읽으며, 쉬는 시간도 쪼개며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허나 이 경험들이 훗날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켜주리라 믿습니다!

김영O / 3등급 → 연매 85점(1등급) > ★★★★★



수능 직후

저는 원래 국어 과목에서 독서·언어보다 문학에 강점이 있었지만, 감에 의존해 푸는 습관 때문에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6·9평과 수능에서 각각 5·5·3등급을 받았고, 재수 때도 문제 양을 늘려 풀어봤지만 결과는 동일하게 3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황용일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여러 풀이 기법을 체화하고 실제 문제에 적용하면서, 6평·9평·수능 모두 문학을 한 문제도 틀리지 않는 1등급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국어를 '감'으로 해결하려는 학생들에게 황용일 선생님의 수업은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통해 국어 풀이가 체계적으로 정돈되는 느낌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문제를 대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황용일 선생님 수업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수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용일 선생님의 학생들을 향한 진심 어린 열정이 매 순간 느껴졌습니다. 그 태도에 깊이 감동했고, 덕분에 수업에 몰입하며 배우는 내용들을 더욱 확실하게 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수능은 정말 고된 여정입니다. 세 번째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실모와 기출의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늘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럴 때마다 황용일 선생님께서는 수업 외적으로도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고, 그 가이드라인 덕분에 스스로를 믿으며 한 해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능 국어에서 기본적인 실력은 물론, 자신을 믿는 힘과 자신감 역시 성적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은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 시절, 저는 '문제를 많이 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고, 제대로 된 피드백 없이 문제만 소모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 답을 골랐는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는지, 다음에는 어떤 의식적인 사고를 해야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꾸준한 피드백이 쌓일 때 비로소 자신감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올해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수능 국어에서는 '시험 운영'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언·문·독순으로 풀었지만, 독서에 상대적으로 약점을 느껴 독·문·언으로 바꾸었습니다. 만약 올해 수능에서 독서를 마지막에 풀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문제 풀이 순서, 운영 방식, 그리고 각 파트에 투자할 시간까지 미리 구체적으로 설정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수능 직후

항상 밝은 미소로 수업을 해주셔서 국어 공부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단 한번도 국어 수업을 듣기 싫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요 ㅎㅎ. **선지를 대하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비문학, 문학, 선택과목을 풀이하는 방법이 다른 수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능 독서지문에서 시간이 없어서 과학지문 보기 한 문제를 찍은 것 빼고는 독서 전부 맞췄어요!! 저는 **특히 칸트지문 보면서 이전에 배웠던 논증법이 생각이 나서 웃으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문학도 출제진이 준 감상에 근거하여 푸니 그렇게 어려웠던 지문은 없던 것 같아요.** 독서 1개, 문학 2개 틀렸지만 전 이 정도도 **올해 초와 비교하면 말도 안되는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저의 국어를 책임져 주셔서 감사드려요!!!

*전 오히려 6,9평 때는 망했는데 수능 때 평소대로 하니 무난하게 잘 본 것 같아요. 정말 **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았고** 서바이벌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후배들에게!

전 사실 3학년 1학기가 시작하고 나서부터 수능 국어 공부에 소홀히 했었어요. 그래서 1학기 내신이 전부 끝나고 보니 '내가 무언가를 배웠던 것 같은데 뭐였지..' 싶더라고요. 6월 모평을 망친 뒤 그때부터 **자리도 앞자리에 앉아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가장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용일쌤 수업이 쉽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하루보다 나머지 날을 정말 잘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그게 잘 와닿지는 않았거든요ㅎㅎ. 나중에 가면 정말 큰 차이로 돌아옵니다! 이전까진 해보지 않았던 풀이 방식일 것이라서 처음에 열심히 노력한다면 뒤로 가선 그게 당연히 여겨져서 편해져요. 정말 들으면 좋은 수업이라서 꼭 추천하고 싶어요.

한 가지 팁도 드리자면 수능 날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효율적인 공부를 하게 돼요. 이러면 마음속으로 는 안정감을 찾게 되겠지만 실력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에 급급한 것보다 (아차피 나중에 주로 하는 것이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분석하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쌤이 주시는 주간지도 푸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닌, 즉 시간 내로 푸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어떻게 선지가 구성되어 있는지, 왼쪽과 오른쪽에는 무엇이 주로 와서 어떤 선지부터 주로 봐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전부 선생님께서 강조하실 테지만 저는 집에 가면 홀라당 까먹고 그냥 풀었거든요ㅎㅎ 하루라도 빨리 공부했다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는 **제발 쌤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왕 수업을 듣기로 했으면 가장 잘 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전부 성적으로 돌아올 겁니다. 1년 동안 성적이 자주 변할 것이고, 잘되지 않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용일쌤, 조교쌤들이 하시는 조언을 잘 듣고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임지O / 3~4등급 → 연매 85점(1등급) > ★★★★★



수능 직후

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실력이 잘 늘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항상 3~4등급의 성적만 나와 공부량을 늘려보고 모의고사도 더 풀어보았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결국 재수라는 선택을 하였고, 솔직히 '1년을 더 해도 국어 실력만큼은 바뀌는 것이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저의 지금까지의 공부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문학 수업밖에 듣지는 못하였지만, 평소 제가 감으로 문학을 풀던 것과 달리 정확한 무기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정말 좋았고, 재수하면서 문학만큼은 자신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문학 보기 문제를 풀 때 막히는 것이 몇몇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던 내용들이 생각났고, 마치 옆에서 선생님이 '정신차려, 다 해봤을 때 답이 안 보이면 내가 뭐하라고 했지?'라고 말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록 선생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눈에 띄는 점수는 아니겠지만 국어 때문에 재수를 한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점수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후배들에게!

국어는 황용일 선생님이 답이니,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해도 좋은 성적이 나올 겁니다.** 2027학년도가 현 교육과정에서의 마지막 수능이라고 들었는데 후회 없는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창O / 연매 93점 > ★★★★★



수능 직후

반수반이라 선생님과 함께 한 시간이 5개월 남짓 정도 되지만 **국어 점수는 n수(n>4)를 하며 받은 수능 점수 중 제일 잘 나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문학을 어려워했고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 비문학이나 연매는 답이 비교적 명확하고 잘 보이지만 **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고른 답도 정답이 되기에 충분할 것 같은데 매번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생님과 수업을 들으면서 행동 영역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지문을 읽고 선지를 본 후 무작정 비교해가면서 풀던 행동이 교정되었고, **제 주관이 아닌 필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선지를 보니 정답의 근거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 후 '이무기'를 통한 연계 공부 및 n제를 통해 ebs 공부의 부담이 적어졌고 이러한 것들의 축적으로 수능 점수가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에게!

문법 개념은 되도록 상반기에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반기에 문법에 대한 부담이 적어져 공부 효율과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계공부를 하되 너무 매몰되어 기출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직후

시대인재에서 황용일 선생님 수업을 수강하기 전에는, 수능 국어 문학 3점짜리 보기 문제를 풀 때, **지문의 정서와 느낌만으로 문제를 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쉬운 보기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곧잘 풀렸습니다만, 어려운 보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는, 정답률도 낮아지고, 답을 고르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험 전체의 시간을 배분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면, 시대인재 재중에서 황용일 선생님 수업을 처음 수강할 때, 선생님께서 어려운 보기 문제를 접근할 때, 보기의 관점이나 보기에서 주어진 문장을 통해 손쉽게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골라내시는 과정을 직접 봤을 때는 매우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제가 이 풀이 방법을 올바르게 체화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지만,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가며 선생님의 풀이 방식을 체화하게 되었고, 평소에 자신 없었던 유형인 문학 3점짜리 보기 문제를 잘 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국어 시험에서의 정답률 뿐만 아니라, 시간 관리 측면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수능 국어는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과목'이 아니라, 머리 속 사고 방식 자체를 바꾸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초반엔 힘들어도,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꾸준히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과목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바를 통해 조언을 드리자면,

문학은 많은 작품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개의 기출 분석을 통해 터득한 감상 기준을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는 화자의 정서 변화나 시적 상황, 내적 갈등 등이 중요합니다. 소설은 사건의 흐름, 인물의 관계, 이야기의 시점 등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본인만의 방법으로 잡으면 처음 보는 비연계 작품도 안정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틀린 문제 분석은 "왜 틀렸는가?"를 넘어 "어떻게 해야 안 틀릴까?"까지 가야 합니다. 단순히 해설을 읽고 "아~ 이래서 틀렸구나" 하고 넘어가면 실력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단계까지 가야 제대로 된 공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놓친 근거는 어디에 있었는가, 어떤 사고 습관 때문에 엇갈렸는가,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답은 늘 지문 속에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내 생각"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국어에서 오답은 대부분 "이 정도 의미겠지..."라는 추론 과잉 때문에 생깁니다. 국어는 지문이 말한 것만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내 생각을 절대 섞지 말고, 지문 표현과 오직 보기만을 통해 정답을 고르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국어는 결국 실력이 있어도 시간 관리를 못하면 점수의 하방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최소 6모 전까지는, 본인에게 맞는 선택과목을 골라야 하고, 최소 수능 한 달 전까지는 독서, 문학, 선택 과목의 풀이 순서를 본인의 점수가 가장 잘 나오는 방식으로 골라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을 재는 연습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국어는 하루 이틀로 실력이 느는 과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에, 또한, 조금씩이라도 매일 조금씩 사고 체계를 정리해 가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안 되는 게 당연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지문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문제가 훨씬 논리적으로 풀리는 때가 옵니다. 그 시점이 오는 사람들은 모두 꾸준히 해낸 사람들이었고,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수능 국어는 누구에게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아직 수능 국어를 완벽하게 정복해 냈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푸는 방법을 아는 것과 시험장에서 점수를 잘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하면 반드시 오른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실력이 점수로 드러나는 데 사람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버티고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2027학년도 수능, 교육과정 마지막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고 성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택O / 3등급 → 연매 백분위 99(1등급) > ★★★★★



수능 직후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전 시대인재에서 선생님 수업 들었던 대전 반석고 졸업생 윤택O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수능에서 연매 백분위 99를 받았어요! **작년 국어 연매 백분위 86(3등급)에서 올해 모의고사 때마다 조금씩 올려서 수능 때는 최고 백분위가** 나왔습니다.

- 작년(현역)의 국어

저는 시대 단과와 독서실을 다니며 올해 1년 재수 생활을 했어요! **국어는 사실 제가 자신있고 좋아하는 과목이어서**(고전 소설 나오면 전문을 다 읽어보고 시 외우고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ㅋㅋ) 어릴 때부터 효자 과목이었고 자신도 있었기에 **별 생각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되고 점수 폭이 좀 크게 나는 상황이었는데(100점부터 2등급 말까지) 애써 수능 땀 잘할 거라며 넘겼지만... 다음날 확인해보니 쪽박..이었어요.** 국어 채점하자마자 재수가 확정되었고 망설임 없이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ㅠㅠ

- 시행착오 과정

사실 ㅎㅎ 처음엔 선생님을 완전히 믿지 못했어요 ㅠㅠ 예전에 풀어왔던 버릇이 굳어져 있었고 항상 즉석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는 '문학 개념을 활용해도 될까? 만약 예외가 있으면 어떡하지?'하는 생각에 계속 망설였어요. 일단 배운 대로 해나가고 있긴 한데 의심이 한 켠에 있어서 그런지 이미 풀었던 문제도 틀리곤 했어요ㅋㅋ ㅠㅠ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렵פות이 뭔가 잡힐듯 말듯 한 시점에서 9평을 보고 뭔가 알긴 하는데 애매하다는 생각에 아예 굳혀버리기로 다짐하고 **9평 이후 한 달간 선생님께 카톡으로 질문드리며 바짝 땀기며 (다시 국어 4시간씩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을 믿고!! 다시 용어 자체부터 정확히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용어가 실제와 맞는지부터 대조해 나갔고 용의주도 교재를 문학 비문학 모두 보이스 책 펴놓고 보이스 책을 따라 읽고 역으로 다시 빈 교재를 보며 분석해 나가며 자주 제 이전 생각으로 돌아가는 걸 막으려 했어요. 그렇게 1주일쯤 지나자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더라고요... 주마다 나아지는 걸 느끼며 자신감이 한번 붙으니 어느새 문학 선지를 보며 이건 뭐냐 ㅋㅋ 라고 하며 고르거나 비문학 선지를 보며 글자 그대로가 아니어도 침착하게 해당 부분으로 돌아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이 되자 9평 때와는 확실히 달라진 게 보였고 이 상승세를 믿고 서바 점수를 안정화시키며 매뉴얼 세분화에 한 달을 보내고 수능장으로 갔어요. 수능장에서는 용기책 일부를 뜯어낸 것과 용기 노트 매뉴얼 일부를 옮긴 기다란 메모지를 가져갔어요! 대기시간에 손을 주무르며 핵심 매뉴얼 3개를 중얼거리고 1교시 때 수능 전주 서바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짠 운영 방식대로 풀어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선생님과 국어 공부하는 태도와 알려주신 국어 공부 계획에 맞춰 다른 과목에도 적용해 본 결과 다른 과목들도 따로 마음 쓰지 않고 시기별로 적절히 해나갈 수 있었어요. 또... **'담대하고 의연하게' 문구와 선생님의 밝고 긍정적인 말씀들 덕분에 재수하면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을 많이 덜어냈고 멘탈 관리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ㅠㅠ** 정말 국어 과목이든, 다른 과목이든(특히 수학은 마지막에 국어처럼 기출 공부했고 저에겐 커리어 하이인 점수를 받았어요.), 멘탈 부분이든... 선생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후배들에게!

1년 동안 국어가 사연이 제일 많은 과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올해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 해 줄 말이 있다면... **선생님을 믿고!! ㅎㅎ 용어나 방법이 헛갈리고 가웃거리는 순간 기존의 방법으로 무의식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빠르게 여쭙보는 걸 추천한다고 말해 주고 싶어요!** 9평 이후 선생님께 질문드리며 보이스와 함께 용의주도 분석하며 보낸 한 달의 시간이 수능 1교시를 무사히 마무리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선생님을 빠르게 믿는다면 9평 이후에 깨달은 저보다 더 빠르게 일관성 있는 접근법을 익힐 수 있을 거라고도 말해 주고 싶어요!**

길준O / 4등급 → 연매 백분위 99(1등급) > ★★★★★



수능 직후

용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25년에 대전 시대인재 아침반에서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학생입니다.

올해 선생님 수업을 통해 국어 성적이 정말 많이 올라서, 감사 인사와 후기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첫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수능장에서는 내가 옆에서 같이 싸워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는 반은 의심, 반은 신기함으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사대부 세계관 시점 이해 같은 문학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고, 미르온으로 개념을 체화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실모를 풀 때 선생님이 바로 옆에서 “야ㅋㅋ 이거면 이거여야지”라고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문학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문장 앞에서 주제 잡기, 역도약 최소 활용, 과학기술 지문의 사용설명서적 접근, 논리학 요건 등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독서 개념을 몸에 익히다 보니, 매 지문마다 2~3개씩 틀리던 저였는데 독서 실력이 눈에 띄게 안정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수능 직전까지 용의주도한 기출 분석, 미르온으로 감 유지, 조교 선생님들과의 복기노트 피드백까지 쉬지 않고 이어간 결과, **이번 수능에서 국어 백분위 99라는 정말 꿈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역 때 국어가 늘 4등급이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오르지 않아 국어에 대해 비관적인 마음이 컸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고, 성적이 오르면서 그 비관이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의 지도는 제게 정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학년도 수능】

영역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미적분		물리학I	화학I	-
표준점수		118					
백분위		79					
등급		3					-

【2026학년도 수능】

영역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미적분		물리학I	지구과학I	-
표준점수		140					
백분위		99					
등급		1					-

이O / 3등급 → 1등급 > ★★★★★



수능 직후

안녕하세요 대구 다원에서 선생님 수업 들었던 이O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 연락 드렸어요! 선생님 덕분에 올해 처음으로 수능 국어 1등급을 받았습니다.

만년 3등급에서 선생님 수업을 듣고 한 달만에 9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고, 그 이후로 10월, 수능까지 꼭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파이널 시즌에 듣기 시작한 거라 너무 늦은 걸까 싶었는데 선생님을 믿고 꼭 따라가니 '국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문학을 감으로만 풀던 제가 어느새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선지를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미르원 voice인데요, **오랜시간 잘못된 방법으로 국어를 풀어 온 만큼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했는데 그때 voice가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고, voice와 비교하면서 생각을 고쳐 나가니 제가 점점 선생님처럼 사고하고 있더라고요 ㅎㅎ **수능 때도 정말 옆에 계신 것처럼 목소리가 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항상 학생들에게 격려와 따끔한 조언을 해 주셔서 무너질 때마다 의지를 다질 수 있었어요.

선생님을 뵈 시간은 얼마 안되지만 제게는 정말 스승님 같은 존재세요 ㅎㅎ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김도O / 1등급 / 경북대 의예 합격 > ★★★★★



수능 직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올해 대치 시대에서 선생님 단과 들었던 중대부고 김도O입니다.)

히히 좀 늦게..늦게 보내는 감이 없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 확실해진 다음에 소식 전하고 싶었거든요

저 '국영수 중 2개+탐구 2개 평균' 합 4라는 최저를 맞추고 경북대 의대에 합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전 수업을 듣기 이전에도 꾸준히 국어에서 학교 내신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늘 1등급을 맞던 학생이었어요. 허나 누가 제게 모의고사 1등급 비법을 묻는다면 **'감'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허수였죠. 언제 이게 무너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던 와중에**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감으로밖에, 눈대중으로밖에 풀 수 없던 걸 체계적으로 '무기'처럼 가공해주시고, 효율적인 풀이방법을 잡아주셨다고나 할까요 ㅎㅎ** 원오판단, 보기와의 비교 등.. 수능시간에 알차게 써서 1등급을 거머쥐었습니다

비록 100점은 아니지만, 제가 바라던 수준의 점수였기에 충분히 만족하고, 이렇게 되도록 그동안 도와주신 '꿈 속 조력자' 황용일쌤께 뒤통스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龍의 주도

V 미르원人국어 Preview

수업 특징 / 학습관리 / 학습교재 / 학습계획

수업특징 Feature

수능 국어, 가장 실전적인 사고와 방법을 만나다.

특징 1 “전공자”의 깊이는 다릅니다.

- ▶시험장에선 감이 좋을 수 없습니다. **뿌리부터 제대로**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르게” 걸을 줄 알아야 “멋있게” 달릴 수 있으니까요.
- ▶정답의 근거를 나열하는 수업은 No! 글을 어떻게 읽고,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를 **출제자의 시선**에서 분석하는 수업 Yes!
- ▶수능 독서와 문학 모두 ‘적절/부적절’의 판단을 요하는 **“논리”**의 영역! 수능 국어의 본질에서 파생되는 **다양하고 논리적인 무기**로 확실한 승리를 이끄는 수업!

특징 2 가장 실전적인 사고 방식을 “체화”합니다.

- ▶선생님은 수능 시험장에 함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은 함께할 수 있지요.**
그렇기에, 수업은 **체화가 가능해야만** 합니다.
- ▶모든 학습 콘텐츠에 수록된 **선생님의 구어체 해설**(미르원스보이스) 정독을 통해 시험장에서도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특징 3 연계 및 기출학습

- ▶보다 완벽한 연계 학습을 위한 **해설서 및 N제 제공**
- ▶철저한 평가원식 사고 방식의 체화를 위한 **2종(갈래별/연도별)의 기출 분석서**를 제공

특징 4 운영 능력 극대화

- ▶국어는 운영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운영 능력**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함양해야만** 하지요.
- ▶최상위권 전용 콘텐츠인 **서바이벌 현장 모의고사**와 해설을 통해 **운영법을 배우고 체화**하게 됩니다.(6평, 9평, 수능 대비)

학습관리 Management

배움에 그치지 않고, “체화”로 나아가기 위한 밀착 관리 프로그램

- 01 학생마다 ‘전담 조교’가 러닝메이트가 되어 밀착 관리
- 02 “모든 수업” 복습영상 제공(자체 학습관리 사이트)
- 03 질의응답 전용 카카오톡 채널 운영 [황용일T 직접 답변]
- 04 선생님의 “손필기 노트” 매주 제공
- 05 수업 및 행정 문의 : 010-6291-4340

학습교재 Contents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은 양질의 콘텐츠

01 龍의주도

수업 교재 및 주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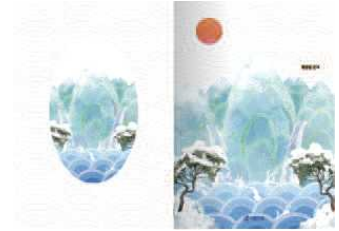
- ▶평가원식 사고 함양을 위한 영역별(독서, 문학, 선택과목) 교재 및 주간지
- ▶매 차시 새로운 주제로 수업 안에서 해결하고, 비교하며 사고를 배우다.
- ▶수업에서 익힌 사고를, 수업 주제와 연계된 평가원, 학평, LEET, 경찰대, 사관 기출 등에 적용하다.
- ▶「미르원스Voice」(해설지)를 통해 쌤의 사고와 비교하다.



02 龍기, 용의 기록

집중 학습 교재

-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주제별 집중 학습 교재
- ▶영역별/연도별 평가원 모음집, 영역별 사설 모음집 등
- ▶「미르원스Voice」(해설지)를 통해 쌤의 사고와 비교하다.



03 E무기

연계 대비 교재

- ▶연계 제재 및 지문 연계를 대비하다.
- ▶전 영역 연계 분석서, 연계 N제 등



학습계획 Curriculum

‘시간’이 아닌 ‘실력’을 쌓는 1년 로드맵

시즌1(기본)	시즌2-1(심화)	시즌2-2(심화)	시즌3(완성)	시즌4(파이널)
龍의주도_기본(독서, 문학) 1월	龍의주도_심화(독서, 문학) 3월	龍의주도_심화(독서, 문학) 5월	龍의주도_완성(독서, 문학) 7월	龍의주도_파이널(독서, 문학) 9월
-	-	E무기_수특	E무기_수특	E무기_수특
龍기_갈래별 기출	-	-	龍기_연도별 기출	-
-	-	서바이벌 현장 모의고사 (6월 평가원 대비)	서바이벌 현장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대비)	서바이벌 현장 모의고사 (파이널)

● 주교재 ● 연계 ● 기출 ● 실전 모의고사

- ▶ 선택과목은 주간지 및 집중학습 교재(용기) 제공, 문법 특강(현장 및 영상) 개설 및 수업 시간 일부 할애하여 진행됩니다.
- ▶ 시즌3부터 매주 서바이벌 현장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목	금	토	일
-	-	목동 시대인재	대구 다원교육
-	-	목동 다원교육	대구 다원교육
대치 시대인재	대치다원 특목	대전 시대인재	-

대치 시대 | 02-552-2373
목동 다원 | 02-2652-1162

목동 시대 | 02-2643-1237
대구 다원 | 053-754-4365

대전 시대 | 042-485-2372
다원 특목 | 02-3454-0483

● 아침 ● 점심 ● 저녁
기타 통합 행정문의 | 010-6291-4340
(미르원예듀 황용일 국어 연구소, 문자전용)